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제임스 김 목사

목록

서론	3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1-4)	5
편지를 쓰는 목적 (1:4; 2:1; 5:13)	17
“하나님은 빛이시라”(1:5-10)	24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2:1-6)	40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습니다. (2:7-11)	51
거리낌이 없는 형제 사랑 (2:10)	60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2:12-17)	64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2:18-25)	77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9:26-29)	94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10)	104
서로 사랑하라 (3:11-24)	131
어떻게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3:14)	165
분별해야 합니다. (4:1-6)	171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4:7-21)	197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1-5)	223
“하나님의 증거” (5:6-12)	257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5:13-21)	270
결론	322

서론

약 3년 전인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 교회의 표어를 “서로 사랑하라”고 정하고 3가지 작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감사, 용서, 희생. 표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러한 새해 표어와 목표와 성경구절 중심으로 저는 성경 66권 중 어느 성경책이 적합할까 고민하다가 “요한일서” 책을 선택을 해서 요한일서 1장 1-4절(설교 제목: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인 2021년 12월 26일 요한일서 5장 13-21절(설교 제목: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말씀까지 약 2년 9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뒤돌아 볼 때에 요한일서를 설교하기 시작해서 몇 주 안 되서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표어에 요한일서 책(편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확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1장만 보아도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1:1-3). 그런데 참 흥미로웠던 것은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를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사도 요한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5:20). 결국 요한일서 편지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일서 책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3:16)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23절).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새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과 후렴),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21년 12월 30일,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3:7-8, 현대인
의 성경)]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 묵상]

금년 2019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표어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13절).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14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위하여 금년도 표어를 “서로 사랑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표어구절인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 7-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는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목표는 주님의 뜻이 계시면 요한이서와 요한삼서까지 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고자하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서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또한 사도 야고보의 형제로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 사도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수난(고난) 및 부활의 목격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요한일서 외에도 요한이서, 요한삼서 및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개역개정 성경해설을 보면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 (1) 첫째 목적은,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에 의해 심각한 위기를 맞은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영지주의”란 “영적 지식(gnosis)을 추종하는 동방 종교와 희랍철학과 신지학(theosophy),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혼합 형태로 주후 80년부터 150년 사이에 초대교회와 경쟁했던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운동”이었습니다(인터넷). “영지주의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2 가지 그릇된 전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릇된 전제 중 하나가 바로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입니다. 영지주의자는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육이원론은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미혹하는 신앙의 양태를 영육이원론의 영지주의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초기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단 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 중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계 2:15)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와 관련된 흔적이다. ‘니콜라당’(Nicolaitans)이라는 말은 초기 영지주의의 지도자 니콜라스(Nicolas)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니콜라스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로서 사도들에게서 신앙을 전수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나 결국 이단의 길로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인터넷).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단 세력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2: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일4:1-3)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써서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에 의해 심각한 위기를 맞은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지금 현대 교회에도 충분히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각종 이단에 의해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형태의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므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듣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 둘째 목적은,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참 사랑의 교제를 하므로 어떠한 거짓된 지식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거하길 원했습니다(개역개정 성경해설). 참으로 중요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인격적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참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주님과 이러한 참 사랑의 교제가 결핍돼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 아래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입니다. 한 2가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 [(현대인의 성경)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부터

있는”이란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성경 구절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성경구절이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란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입니다. 이 두 성경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란 동일한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시간과 공간의 시초”(인터넷)]를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초시간적인 영원한 태초”(인터넷)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란 어느 태초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대로 사도 요한이 말한 “태초부터 있는”이란 말은 천지창조 이전인 영원한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원하심(the eternity of Christ)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the divinity of Christ)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생명의 말씀”(the Word of Life)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 하반절에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로고스)이시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요1:1) “생명”(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14:6).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요일1:3)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나타내신바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현대인의 성경) “이 생명이 세상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the eternal life)이 나타내신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말씀(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가리킵니다(The Outline Bible).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the humanity of Christ)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현대인의 성경)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사실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incarnation)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육신”이란 성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성자가 완전한 인성, 즉 영을 포함한 몸과 혼을 취하신 참된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로이드 존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것은 진정한 육체였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취하신 것은 단순한 겉모습이나 형태가 아닌 진정한 성육신이였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모양만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몸의 형체만 있을 뿐 허깨비 같은 몸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실제 육체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운데 거하신 것이다”(로이드 존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시게 하시되 성자가 취하신 인성이 죄가 없도록 하셨습니다[“나실 바 거룩한(죄가 없고 순결한) 이는”(눅 1:35)(로이드 존스)].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 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직접” 보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다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 2, 3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2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3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 3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전하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1절) 또한 이 땅에 나타나신바 되신 이 “영원한 생명”(2절)으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the divinity of Christ)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the humanity of Christ)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전한 이유는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신성만 소유하셨으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물질은 악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심으로 신성을 가지신 그가 실제 물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성인 육체적 본질은 실재가 아니고, 단지 눈에 보인듯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하나의 환각과 환영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도케니즘”(Doceticism)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인 살과 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만 눈에 보이는 듯하다가 사라져버리는 환각이나 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인터넷).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까? 이것은 거짓말이요 초대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세상에 많은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학계에서 논쟁이 심화되었던 주제가 바로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신학자들 중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때 이단 세력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반대했습니다(인터넷). 그러나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듯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없으신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서 1장 3-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진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전15:3-4).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행16:31).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처럼 “생명의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해야 합니다(요일1:1-3). 우리는 우리가 듣고 인격적으로 만나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서(골1:23)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합니다(롬1:15).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면서(빌1:2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행14:21).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빌2:22).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목적이 이중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적인 목적을 수직적인

목적(the vertical purpose)과 수평적인 목적(the horizontal purpos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Outline Bible 주석):

먼저 수직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들었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 본(1, 2절 현대인의 성경)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요(1절) 이 세상에 나타나신바 된 “영원한 생명”(2절, 현대인의 성경)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를 전한 첫 번째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fellowship)이 있게 하려 함”이였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우리과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3절).

여러분, “사귀어” 또는 “교제”란 무엇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 안에서 남용되고 있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fellowship)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제란 단어가 남용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교제를 “사교”(socializing)나 하나의 “활동”(activity)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의 추구”(The Pursuit of Holiness)란 책 외에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저술가인 Jerry Bridges는 “Fellowship is a relationship, but not an activity”(교제란 관계이지 활동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전한 목적은 “우리과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so that you too may have fellowship with us”(NASB)]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과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NASB)]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교제”(사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한 목적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기를 원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그들 또한 자기처럼 “생명” 또는 “영생”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1-13절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신(1:1,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영생이 있습니다(롬6:23; 요일5:11-13).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시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므로 그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이 자기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롬6:23)를 받아 누리길(enjoy)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Word Studies in the N.T. 주석).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돼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 다음 수평적인 목적은 바로 기쁨이 총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총만하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요 세상에 나타나신바 되신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써 보”낸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도 총만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1-4절).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한 목적이 “우리와 교제”(3절, 현대인의 성경)와 “우리의 기쁨”(4절)이란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두 목적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서 기쁨이 총만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수직적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총만함을 수평적으로 그의 편지를 받는 초대 교회 형제, 자매들도 받아 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닌가요? (빌1:27)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수직적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수평적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기쁨의 총만함을 누리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누리면서 누리를 기쁨의 총만함은 천국 계명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므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총만한 것입니다(요15:9-12). 새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가사(1, 4절 후렴)가 생각납니다: (1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4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 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후렴)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총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시대처럼 각종 이단에 의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거짓 복음이 여기저기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식어졌습니다(마24:12). 그리고 더 이상 주님과 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는 충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더욱더 두텁게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 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땅에 나타내신바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요일1:1, 2).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the divinity of Christ)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the humanity of Christ)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전한 이중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교제)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수직적인 목적) 또한 우리의 기쁨이 총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수평적인 목적)(3-4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사도 요한처럼 이러한 분명한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우리가 이것을 씬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씬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한일서 1장 4절; 2장 1절; 5장 13절).

금년 2015년에는 아내와 제가 따로 크리스마스카드를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있는 친지들과 교회 식구들 및 친구들, 대학/신학교 동문들 등등 보냈고 저는 한국에 있는 친지들과 섬겼던 교회 분들과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지체들에게 편지와 더불어 짧은 메모를 적어 보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렇게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고 또한 편지와 메모를 적어 보내면서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분들이 저희 가정의 보낸 크리스마스카드 사진을 냉장고에나 벽에 붙여 놓으시고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작년에 고 최분남 할머니 집에 방문했을 때 거실 병원 침대 쪽 벽에 저희 가정 크리스마스카드 사진이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로원에 계셨던 고 임봉희 할머니와 고 김동윤 집사님의 침대 벽에는 제가 저희 가정 크리스마스카드 사진을 붙여 놓곤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제가 섬겼었던 서현 교회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저희 크리스마스카드 가정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년에도 크리스마스카드를 편지와 메모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로 저희 가정 크리스마스카드 사진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고 또한 제 개인 웹사이트 여기저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요한일서 1장 4절, 2장 1절, 5장 1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3가지 입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영생을 그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영생"은 "조에(life) 아이오니오스(eternal)"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에"(생명)라는 말과 "아이오니오스"(영원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인터넷): 이것은 첫째로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하고, 둘째로 질적으로 "인간의 삶과는 다른 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말에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이란 의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적인 삶이란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의 의미는 공관복음처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도 의미하지만 그보다 "현재"에 누리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요17:3)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내세의 축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의 성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마나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비록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분적으로 마나 영생의 축복인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요20:31).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사실입니다(요일5:20, 현대인의 성경).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1:1)이요 “영원한 생명”(2절)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현대인의 성경)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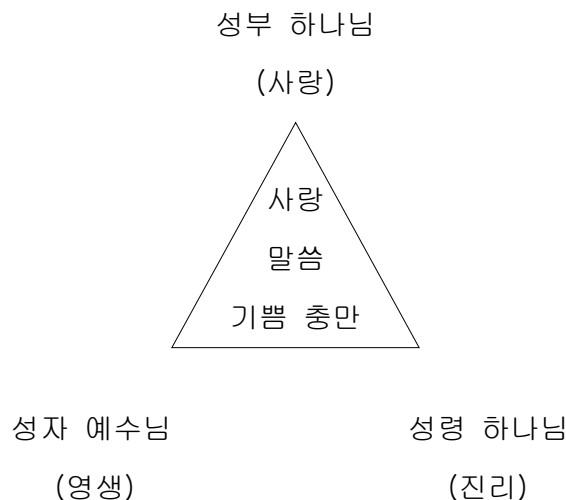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4절).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3:23).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2:4).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아는 자요(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5:3; 참고: 요14:21)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일4:1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2:5).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빛”입니다(1:5).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2:9).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3:10).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14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15절). 그러나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에 속하였습니다(19절).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2:10, 현대인의 성경).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3:21). 그리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24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24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4:13, 현대인의 성경).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그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2:1).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하면서(2절)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12절).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4:10).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3:3).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5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1:7).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셋째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세 번째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사귄)가 있어야 합니다(3절). 여기서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4:8, 16).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7절). 사랑하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11절). 즉,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3:16). 우리는 “도와 줄 마음”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17-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4:18).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5:20, 현대인의 성경).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1:1-2).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5:6).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세 번째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4). 이러한 기쁨 충만함은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과 영생이신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사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교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시면서(갈5:22)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중 계명이요 천국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순종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요15:10) 우리도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지키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우리)에게 이름은 내(주님의) 기쁨이 너희(우리) 안에 있어 너희(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11절). 이렇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므로 주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희락”)을 충만케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10절 말씀 묵상]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 약 39년 역사에 적어도 한번은 전기가 나가서 새벽기도회 때 촛불을 키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촛불은 주로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했던 긴 촛대가 아니라 넓적하고 작은 것으로서 주로 연회 때 식탁에 decoration으로 놓은 촛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촛불을 켜지만 이 어두운 본당을 환하게 밝혀주지 못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16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이와 같이”란 “우리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우리 집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비춰야 하는지 잠언 13장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춰야 할까요? 우리는 거짓말을 미워하고(잠13:5) 진리를 기뻐하므로 이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므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 입술을 미워하십니다(12: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히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진실 된 자를 사랑하십니다(22절).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므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의인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진실한 입술은 마치 양약 같아서(18절) 선한 말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25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정직한 입술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해야 합니다(6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므로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되 그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들의 영혼의 인도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키므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13장 3절을 보십시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빛을 환하게 비취기 위해선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13:4).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부지런한가 아니면 게으른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직히 행하므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6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합니다(13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행사가 다 진실해야 합니다(시33:4).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므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행해야 합니다(잠13:16).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는 교훈을 가르치므로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14절).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므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성경 잠언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래의 소원의 성취가 더딜 때 우리는 상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심을 목격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므로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말씀으로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 부분으로 된 진리(twofold truth)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으로 된 진리란 (1)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과 (2)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인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 와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라고 말한 후(요1:1-3)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4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요한일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요일1:1)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2절)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또한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였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요1:9)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했습니다(8절).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7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의 말을 다시 좀 정리하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요 “세상의 빛”이시요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참 빛,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한 후 5절 하반절에 와서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결코 어두움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고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는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에서의 빛과 어둠은 빛은 생명(Life) 또는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을 가리키고 어둠은 반대로 죽음(death) 또는 영원한 죽음(eternal death)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빛과 어둠이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절인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란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빛은 “진리”(truth)고 어둠은 거짓(lie)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자란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에서 빛은 “사랑”(love)을 의미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어둠은 ‘미움’(hate)이라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즉 어둠에 행한 자에 대한 예를 든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한 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빛은 “의로움”(righteous)이고 어둠은 “악”(evil)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로 말한다면 “불의”(unrighteous)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 부분으로 된 진리(twofold truth)를 말했는데 그는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빛이시요 세상의 빛이시요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10절 말씀 중심으로 한 3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7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귀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귀어”이란 영어로 “fellowship”, 즉 “교제”를 말합니다(“친교”가 아님).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 여기서 “교제”란 단어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라는 단어 속에는 2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공유) 그리고 (2)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분유). 흥미로운 점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한국 성경에는 “서로 교제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원어 헬라어를 보며 “교제”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교제”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 교제”란 바로 “성령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으로 말한다면 그 교제란 ‘성령 하나님과의 사귀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약 3000명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교제(성령님과의 사귀어)에 헌신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의 교제 또는 성령 하나님과의 사귀어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7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귀어”는 무엇입니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 가지를 사도 요한은 “만일”(if)로 시작했습니다:

- (1) 첫 번째 “만일”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입니다(6절상).

실제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귄(교제) 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7절) 어둠에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며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그리 행하고 있다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6절하).

(2) 두 번째 “만일”은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입니다(7절상).

여기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것(practice the truth)이라 생각합니다(6절하). 사도 요한은 만일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7절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귄(교제)가 있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사귄이 있어야 합니다(수직적인 사귄). 이 수직적인 사귄이 먼저 있어야 우리에게 서로 사귄이 있을 수 있습니다(수평적인 사귄). 사귄의 우선순위는 먼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 사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중 사귄에 중요한 것은 "그 교제"입니다(사도행전 2장 42절 한국 성경에는 "교제"라고 쓰여 있지만 원어 헬라어를 보면 정관사가 "교제"란 단어 앞에 있음). 여기서 "그 교제"란 성령님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중 사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를 함께 나누게 (공유케)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서로에게 주는 것(분유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교제"(원어 헬라어:

디아코니아)의 의미는 공유와 분유임]. 그러므로 이 이중 사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요일 1:6).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만일우리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7절하). 여기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지 않았나요? 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님의 피가 빛 가운데 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직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어둠에 행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게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1:7). 우리가 서로 사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사권 속에서 성령님께서 서로 사권이 있게 하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권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어둠에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들은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 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진실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숨기기 바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된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시119:113). 우리는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12:2). 이렇게 우리 같은 이중인격자들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립니다(약1:8, 현대인의 성경). 또한 지금 우리가 접한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거짓말을 가볍게 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8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10절, 현대인의 성경) 오직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만(5절)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아예 죄가 없으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죄가 전혀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 시편 51편 5절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현대인의 성경)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뱀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어머니가 우리를 뱀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5절)고 말씀하고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6절),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6절, 현대인의 성경) 그 어둠(죄)이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들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에 행할 때 우리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 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요한일서 1장 10절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사도 요한은 8절 하반절에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10절 하반절에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성경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은 진리가 마귀 속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진리(하나님의 말씀)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가 마귀 속에 없는데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자들에게도 진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하나님의 말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8절).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깁니다(약 1:22).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합니다(요일1:6).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사귄(교제) 가운데 들춰지는 우리의 어둠의 일들, 우리의 죄들을 깨달으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9절).

마지막 셋째로, 빛이 자녀들은 죄를 자백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외웠던 것은 대학교 때

어느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대학교 캠퍼스에 오셔서 제자 훈련 성경공부를 인도하셨을 때입니다. 그 때 그 목사님께서 저와 또한 제 선배님들하고 성경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셨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5가지 확신이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 확신이란 바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확신 구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대학교 때 처음으로 그 다섯 가지 확신 구절을 접하고 배운 후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1) 구원의 확신(요일5:11-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2) 기도응답의 확신(요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 승리의 확신(고전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4) 인도의 확신(잠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5) 사죄의 확신(요일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이 5가지 확신 말씀 중에 근래에 와서 묵상하며 제일 고민했던 말씀은 바로 “인도의 확신”인 잠언 3장 5-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묵상과 고민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는 습관(본능)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자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7절). 예를 들어, 제가 제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 이런 저런 일들을 추구하다가 계획대로 잘 되면 저는 분명히 제 자신(의 명철)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저는 결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의 씨름 속에서 들었던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적었습니다(2015. 7. 9.): “나는 오늘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감사히 생각하며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기원하는 바이다.” 이렇게 저는 근래에 “인도의 확신”에 대한 고민과 씨름과 배움이 있었지만 이 5가지 확신 말씀을 대학교 때 배웠을 때 제일 큰 고민이 되었던 확신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요일5:11-12). 분명히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일5:12)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저는 당연히 “승리의 확신” 성경 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의 습관적인 죄와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 자신의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또 지고 하니까 승리의 확신 성경 구절도 저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동시에 저는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수 없이 하나님께 그 습관적인 죄악 된 삶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저에게는 “사죄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죄 사함의 확신이 없었기에 항상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과 자괴감에 허덕이곤 했습니다. 그 “사죄의 확신”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가 말한 “우리 죄”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죄를 생각하겠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란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무슨 죄를 염두 해 두고 “우리 죄”라고 편지를 쓴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다시금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10절을 읽고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6절과 8절과 10절에서도 “만일”로 시작하는 것을 좀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세 구절 말씀을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연관해서 목상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 죄”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입니다(6절).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죄요 또한 진리를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6절). 또한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 죄”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나(10절) 또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8절) 또한 “우리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deny)하는 것도 “우리 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범한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꾸만 부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는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미움이라는 어두운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이 멀면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한 것처럼 우리가
 어두움에 행하고 있으면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요, 죄가 없기에 자백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죄”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6절) 여기서 어둠에
 행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
 11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어둠에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자백하지 않지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7절)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
 이유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어둠에 행하는 자들과 달리 빛에 들춰진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죄를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자백하는 이유는 그들은 죄사함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자기들을 모든 죄(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7, 9절).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이유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9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2:1, 2).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골1:22).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만일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죄요 또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 이유는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묵상]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마스 아 켐피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이리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의 길을 걸지 않을 것이다”(요 8:12 참조). 주님은 이 말씀에서, 진정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분별없는 마음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걸어온 길을 본받아 행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되새겨 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인터넷). 우리가 토마스 아 켐피스의 권면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되새겨 볼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즐겨 불렀던 복음사가 “주님 가신 길”이 생각났습니다.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마도 이 복음사가가 생각난 이유는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되새겨 볼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제 마음에 조금이나마 새겨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는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란 제목 아래 한 2가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 주리라 (2x)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2x)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2x).” 저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 찬양이 저로 하여금 2개의 성경구절을 생각나게 하므로 그 두 성경구절이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성경구절이란 이사야 41장 10절과 이사야 43장 1, 4절 상반절입니다:

(1) 첫 번째 성경구절은 이사야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성경구절과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연관해서 생각할 때 왜 이 찬양과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므로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성경구절은 이사야 43장 1, 4절상반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의 가사를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고 쓰여 있는데 이 가사는 이사야 43장 1절과 4절 상반절 말씀에 근거한 가사 같습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제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사신바 된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의 안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저는 4-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그의 안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말과 “산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두 구절에서 ‘주님 안에서 살라/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는 의미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5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주님 안에 산다/거한다는 의미는 주님에게 붙어있다는 말이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도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써 주님 안에 거해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5절).

여러분, 여러분은 왜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어 오르려 하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한국일보): (1) 첫물속에 용존 산소가 부족할 경우라고 합니다. 이 때 물고기는 호흡을 위해 물 밖으로 나와 수면에 아기미를 살짝 내밀고 입을 뻐끔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2) 먹잇감을 잡기 위해, 또는 포식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면위로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3) 물고기가 피부병에 걸렸거나 피부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에도 물 밖으로 몸을 날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한국어에 ‘물고기는 어항을 떠나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요15:5).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구절로 말한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13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풍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오직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11-12절).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거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6절)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그 말은 즉, 주님 안에 산다는 자(거한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9-10절의 말씀으로 좀 달리 말한다면, 주님 안에 산다는 자(거한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란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9-1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현대인의 성경)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서 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산다는 자, 즉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3가지를 연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시하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란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요일2:5-6).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넘칩니다)(요15:11).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 중 하나(수평적인 목적)는 우리가 이미 목상한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도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수직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교제)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3절). 즉,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한 목적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게 하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그들 또한 자기처럼 “생명” 또는 “영생”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한 목적이 “우리와 교제”(3절, 현대인의 성경)와 “우리의 기쁨”(4절)인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수직적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충만함을 수평적으로 그의 편지를 받는 초대 교회 형제, 자매들도 받아 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 상반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사는 자(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므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주님 안에 사는(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는 “당신이 행하는 일보다 당신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The kind of person you are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kind of work you do)입니다. 이 말은 “존재”(being)가 “행함”(doing)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에서 행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함보다 존재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만하고 행함이 없을 때 제 마음에 고통이 있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면 제 마음에 당연히 고통이 있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 번 새벽기도회 때 시편 23편부터 31편까지 읽다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시편 22편 1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시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2:1)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이 두 성경구절 말씀을 연관해서 함께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 4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때 제가 던지게 된 질문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십자가상에서 못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리심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위로(comfort)가 무엇이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으시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으신 게 무엇이였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생각난 말씀이 그 전 주일 설교했던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위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리심을 받으시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위로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케 하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 후반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1)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이란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propitiation)이란 단어는 “만족”(satisfaction)이란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받쳐져 죽으시므로 죄를 형벌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케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MacArthur).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절뿐만 아니라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죄를 속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받쳐져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종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5:18)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19절)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살전 5:13).

(2)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이란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현대인의 성경)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기서 “대언자”(Advocate)란 말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보혜사”(Helper)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옆에서 부르다’(one called alongside)란 말로(MacArthur) “성도들의 옆에서 함께하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종말론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고를 돕는 변호사’란 뜻입니다(인터넷). 현대 말로 한다면, ‘피고 측 변호사’(defense attorney)란 뜻입니다(MacArthur).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섰는데 사탄이 재판장이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기소(prosecutes)를 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MacArthur)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저자 사도 요한은 사탄을 가리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the accuser of

our brother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죄를 고백했으므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모든 불의(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일1:9) 사탄은 우리가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하여 바친다는 것입니다(참소). 그 때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실까요? 재판장이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의 그 못자국과 창 자국을 보여드리지 않으실까요?(요20:27; 계5:9, 13:8) 이만큼 뚜렷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3-34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요일2:1)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2절)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1:9). 그리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2:3).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 후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4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입니다(3절).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또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있어야 하며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이란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받쳐져 죽게 하시므로 우리의 죄를 형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이란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섰는데 사탄이 재판장이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기소(prosecutes)를 할 때에, 즉 사탄이 우리가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하여 바칠 때에 예수님은 피고 측 변호사가 되셔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11절 말씀 묵상]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금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표어를 걸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희생하자는 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송을 복음성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를 선택하여 매 주일 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헌금 송으로 그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헌신하고 또 헌신하길 위해서 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찬양 가사는 성경의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근거한 가사 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도 주일 예배 시간에 이 헌금 송을 찬양하면서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란 가사가 마음에 자꾸만

다가옵니다. 특히 ‘사랑은 바라고 믿는다’는 가사 부분이 위로가 되고 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제 주위에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롬 4:18) 견고한 믿음을 주시길 기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는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생각하게 된 점은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2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참 빛”이 무엇이고 “어두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빛”하면 우리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사도 요한이 말한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고 한 것을 보면(2:8)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참 빛”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입증하는 성경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빛”은 이 세상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참 빛”(the true Light)을 말했는데 왜 그는 그냥 “빛”(Light)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 빛”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개역개정)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즉,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가리켜 “참 빛”이라고 말한 이유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빛’이 있기에 하나님을 가리켜 “참 빛”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 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거짓 빛’이란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생각할 때 그는 이미 그들 가운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줄 알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을 “참 빛”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8절의 “참 빛”과 “어두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1장 5-10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한 4가지 빛과 어두움이 생각났습니다. 그 4가지란 빛이란 (a) 생명/영원한 생명이요 어두움이란 죽음/영원한 죽음(요1:4; 요일1:1, 2), (b) 빛이란 진리요 어두움이란 거짓(요일1:6), (c) 빛이란 사랑(love)이요 어두움이란 미움(hate)(2:9, 11), (d) 빛이란 의로움이요 어두움이란 불의 또는 악(1:9; 3:12)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 요한이 “참 빛”과 “어두움”을 말했다 때 그가 염두 해 둔 것은 “사랑”과 “미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도 요한은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어두움이 “지나가고”(passing away)와 참 빛이 “벌써 비추고 있”(already shining)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동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동일한 동사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이 세상도(The world), 그 정욕(its lust)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어두움이 “지나가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라 생각됩니다(‘지나가고’란 동사는 현재진행형).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세상도, 그 정욕”은 16절에 사도 요한이 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리킵니다(16절). 그러면 ‘어두움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은 거짓 빛인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인 이 세상도, 그 정욕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및 죽음/영원한 죽음, 거짓, 미움, 불의/악,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는 말(the true Light is already shining)은 무슨 의미일까요? (8절)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빛”(4절)이요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9:5) 이미 약 2,000여 년 전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8절 하반절에서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벌써 비침이니라”는 동사는 ‘어둠이 지나가다’라는 말씀의 동사처럼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듯이 이미 과거 약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비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생각하게 된 점은,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는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11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현대인의 성경)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고 이미 들었던 “옛 계명”을 다시금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7, 8절)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한 이유는 그의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벌써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치고 있으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3:23).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그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참 빛이 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사귀어 있고(1:6)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2:3, 5)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온전하게 되며(5절) 또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1:4).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1:4)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들에게 새 계명(“옛 계명”)을 다시금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들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6절)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새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현대인의 성경)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오늘 본문 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란 말씀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6절)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자(9절)란 말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6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란 무슨 뜻입니까? 달리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미워하셨습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9절).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보다 이웃을 미워하며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7-11절에서 한 2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1장 5-6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에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장 9절과 11절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요 아직도 어둠에 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거짓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2)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후반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개역개정) “...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만일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시력을 잃으면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걸기가 힘듭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연관해서 생각할 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는데 그 의미는 그들은 빛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요1:4-5). 그 말은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기에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어두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요일2:11).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여(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현대인의 성경)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산다)고 말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면 우리 속에 거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제일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지 않나요? 만일 우리 속에 이 거리낌마저 없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심히 강박해져 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3개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1) (요6: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2) (요11: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3) (요16: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동일한 저자인 사도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이 석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리낌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걸림이 없다’ 또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걸림이

없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므로 우리 속에 걸림이 되는 것이 없고 실족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므로 우리 속에 거리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마음에 걸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므로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결과 어두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비치고 계시기에 거짓 빛인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인 이 세상도, 그 정욕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및 (영원한) 죽음과 거짓과 미움과 불의와 악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이요 아직도 어둠에 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거짓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움이 우리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속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형제 사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요한일서 2장 10절).

주일 예배 당에 올라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마5:23)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아침 예배당에 올라오면서도 부부가 서로 다룰 때도 있고, 자식들과도 언짢은 일도 있으며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 서로 간에 좀 꺾끄러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마5:24).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왠지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꺾끄러운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로 꺾끄러운 관계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예배당에 올라와 서로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신뢰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unity)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을 가리켜 저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근거하여 ‘거리낌이 없는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관한 거리낌이 있다면

그 거리낌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요일2:11). 입술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요한일서에서 한 3가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2장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1:5).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6절).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므로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11). 어두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11절).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으므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미움으로 차 있는 어두운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 형제의 사랑조차도 받기를 거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2:9).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지 못한 자입니다(2:5).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3:13). 어느 면으로 보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서로 미워하는 것을 성경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살인하면 우리는 칼로, 총으로 등등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중 7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출20:13)란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12:31)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 형제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가벼운 죄로 여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기를 더디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4:16). 또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사도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요15:13).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롬5:6), 죄인 되었을 때(8절)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8절).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결코 형제를 미워하므로 살인하는 죄를 범해선 아니 될 것입니다.

셋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진리는 지극히 상식 적이라 생각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행동을 수 없이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수 없이 사랑 고백을 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너무나 쉽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또한 형제 용서하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그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양 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수직적 사랑), 이웃 사랑(수평적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뛰어 놀래야 뛰어 놀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마24:12).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증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시117:2). 그 증대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결코 형제를 미워하므로 마음에 거리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길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요한일서 2장 12-17절 말씀 묵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 안 해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내 뜻”을 추구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내 뜻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감람 산에서 드리셨던 기도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26:39,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빌2:8)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란 제목 아래 주시는 교훈을 한 5가지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오는 본문 요한일서 2장 13절 상반절과 1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요 …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요”[(현대인의 성경)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맨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위대한 선생? 기독교의 창시자? 혹은 예수는 그저 기독교인들이 만든 신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13절).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15절). 그 때 시몬 베드로가 이리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시사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17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시사 알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3절 상반절과 14장 중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동일한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의 내용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한 후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2절).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중 육신의 부모들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MacArthur).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2:2).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받쳐져 죽으시므로 죄를 형벌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대언자이십니다(1절).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이 재판장이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기소(prosecutes)할 때에 피고측 변호사(defense attorney)가 되신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탄은(계 12:10) 우리가 이미 우리 죄를 고백했으므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모든 불의(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1:9) 우리가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하여 바칠 때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fellowship)를 누립니다(1:3).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자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7절). 그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5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2:3). 즉,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합니다(마 22:37, 39). 그러므로 그/녀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요일 1:4).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요” [(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한

사람인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현대인의 성경)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요14:8). 그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현대인의 성경)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9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3절 상반절과 14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5절). 참고로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 9-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입니다(10절).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입니다(16절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를 누립니다(1:3).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사귀어 가지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기도 빛 가운데 행합니다(7절).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므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2:10). 그리고 그는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므로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1:4).

셋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를 이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3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현대인의 성경)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승리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셨으므로 우리 교회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서 교회란 공동체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투적인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13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란 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라는 “허리 띠”와 “의의 호심경”[“의의 가슴받이”(현대인의 성경)], “평안의 복음(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능히 악한 자”(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14-17절). 그리고 나서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강조하되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잘 찬양하지 않지만 좀 익히 들어 아는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새찬송가 348장). 그 찬송가 가사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통치는 우리들은 흥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3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현대인의 성경)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현대인의 성경은 “마귀”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7절에 권면한 후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마귀에게 속한 자들, 곧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 자들로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7절)로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그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가 형제를 미워한 죄를 자백하므로(1:9)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2:12) 다시금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10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라는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라는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며 굳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가사가 생각납니다:

- (1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 (2절) 온 인류 마귀 궤환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 (3절)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후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최악 된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계속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만들고자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요일5:4).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에[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현대인의 성경)](4:4)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견고히 서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1:4).

넷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최악 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약4:4).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에 있는 것들”[(현대인의 성경) “세상에 속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현대인의 성경)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모든 것을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있기에(17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15절). 성경은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이종계명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22:37-39).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요일2:5).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1:4).

마지막 다섯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요”[(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교제)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둠에 행하는 것이요 이것은 거짓말 하는 죄요 또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4절).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9, 11절). 이렇게 어둠에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자백하지 않지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 이유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어둠에 행하는 자들과 달리 빛에 들춰진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죄를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자백하는 이유는 그들은 죄사함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자기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이유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2:1, 2).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 [(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악한 자마귀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13-14절).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요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15-16절).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있기에(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15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써내려가는 이유를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4:10).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2:2)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1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1:9).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므로써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3:5)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형제, 자매를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9절).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으로써 진리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1:6).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1:9).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2:12).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가 생각납니다: (1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다섯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1)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2)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3) 악한 자를 이깁니다, (4)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25절 말씀 묵상]

여러분, 여러분도 “말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청소년이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누다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문자를 주고받는데 “ㅁㅈ”과 “ㅈㄹ”이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두 처음 보았는데 “ㅁㅈ”는 “미친!”이란 뜻, 즉 그 청소년은 자기 엄마 아빠가 미쳤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고 “ㅈㄹ”는 “지랄!”, 즉 엄마 아빠가 지랄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태(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로서 “정말 세상 말세는 말세야!”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종종 “정말 세상 말세는 말세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정말 말세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 말할 때 “말세”란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가까운 때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합니다(인터넷).

실제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가까운 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달리 질문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말세”라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한 19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① 자기를 사랑한다. ② 돈을 사랑한다. ③ 자랑한다. ④ 교만하다. ⑤ 비방한다. ⑥ 부모를 거역한다. ⑦ 감사하지 아니한다. ⑧ 거룩하지 아니하다. ⑨ 무정하다. ⑩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⑪ 모함한다. ⑫ 절제하지 못한다. ⑬ 사납다. ⑭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⑮ 배신한다. ⑯ 조급하다. ⑰ 자만한다. ⑱ 쾌락을 사랑한다. ⑲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인터넷). 그리고 저는 이 19가지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생각할 때 주로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3가지를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다시금 묵상해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이 19가지 말세에 나타날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며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원통함도 풀지 않고 있지 않나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지 않나요? 그 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가까운 때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한 5가지로 요약해 놓은 게 있어 여러분과 나눕니다(인터넷): (1)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됩니다, (2) 유대인의 총만한 수가 교회 내에 들어와 채워집니다, (3) 복음을 믿던 자들과 교회들이 배교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4)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5) 세상 곳곳에 지진과 전쟁등과 같은 것이 발생하며 대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나 자기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을 다시 보면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로 이렇게 두 번이나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란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말하는 “말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주후 1세기에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그 때가 이미 “마지막 때”였다면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럼 마지막 때 또는 말세란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지 좀 혼동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은 말세 또는 마지막 때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으니”[(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2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인 옛 언약 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신약인 새 언약 시대에 와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이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므로 끝납니다(종결). 즉, 마지막 때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므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이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적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자기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도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일어났”다[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수신자들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이미 들은 것처럼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한 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한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 시대인 1세기 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때가 마지막 때요 그 때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다가온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신약성경이 쓰였던 당시 주후 1세기 때에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2)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은 단수(singular)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한번은 복수(plural)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처음에 단수를 사용했을 때에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어느 한 특정한 사람(a

particular person)을 염두해 두고 말한 반면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을 때에는 사도 요한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 사람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들”(many individuals)이라고 말한 것입니다(MacArthur).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 사람들이란 예를 들어 ‘거짓 선생들’(false teachers)과 ‘미혹하는 자들’(deceivers)을 말합니다(MacArthur).

(3)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말한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25절에서 한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a) 먼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적그리스도들은 예전에는 사도 요한이나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고 믿는 자들에게서 떠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렘14:14; 28:15). 또 생각난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배운 것은 사탄은 원래 천사였으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지어 타락했고,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께 내어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왔다고 배웠는데 그 교리에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금성)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루시퍼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나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b)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적그리스도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다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적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2절). 이러한 자, 즉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고 있었을 약 주후 1세기 당시에 이미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영은 말세(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과 4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한 후 요한이서 1장 7절에서도 적그리스도를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미혹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석절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란 거짓말 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성육신)을 부인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적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23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후 오늘 본문에서 그의 편지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mark)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상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프랜시스 쉐퍼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표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식적인 증거란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와 대조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유의 표지를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개정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번역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유의 표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현대인의 성경)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였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가까운 문맥인 18-1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모든 것”이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사실과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18절).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난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9절). 좀 더 넓은 문맥인 요한일서 2장 1-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언자이시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1-2절).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3-5절) 그 형제를 사랑하므로(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5절).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므로 마귀를 이기고 있습니다(13-14절).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15절). 오히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17절).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받아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27절). 현대인의 성경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겸손히 잘 배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mark),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식적인 증거는 무엇이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를 생각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 두 성경구절을 연관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진리시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사도 요한에서 말씀하고 있는 4가지 빛과 어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리는 빛이요 거짓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란 말씀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진리이시요 진리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인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귄(교제)이 있기에(6절)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7절).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6절). 그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요일1:8)[그러나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요8:44)].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 행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요일 2:21, 현대인의 성경).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묵상한다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4절). 그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 이것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5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요14:26).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보시고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참고: 요이1:4).

셋째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당신들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시편 말씀을 전체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잊히

못하는 시편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시편 기자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므로 그 말씀이 자기 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므로(순종하므로) 말씀 인격화되어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 119편 56절의 문맥 속에서 얻었던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교훈은, 시편 기자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로 소망이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49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로마서 4장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Against all hope) 바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21절). 즉, 약속에 이끌림을 받는 삶(the promised word-driven life)이야말로 말씀 인격화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2) 두 번째 교훈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곤란 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위로를 거절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위로만을 구하려고 고독의 자리에서 몸 부리 치며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저에겐 요한복음 6장1-15절 말씀인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이 제일 큰 위로가 됩니다.

쓰러지고 자빠져 낙심하여 어느 누구도 일으켜 세워주지 못할 때, 또한 어느 누구의 위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이 저를 살리시고(시119:50) 일으켜 주시므로 말미암아 오늘 날까지 오뚝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살았던 이유는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revival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이 나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세 번째 교훈은,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51절을 보십시오: "...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가 그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 6장6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을 때에(요 6:66)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67절)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68절)라고 답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믿기가 힘들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보다 순간적인 사단의 가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 영생의 말씀보다 '이생의 말'을 선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었고 곤란 중에 위로와 더불어 그를 소생케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4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하여금 그들 안에 거하게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가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후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7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 복음의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빌1:27)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고전1:7)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4절 후반절은 우리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써 보았습니다(2019. 7. 8.): “영원한 생명은 다가오는 저 세상인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 천국에서 충분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요일2:6) 주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될 때에(5절)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므로(요 15:11)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영원한 생명”은 요한일서 1장 1-2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대학교 때 성경공부 시간에 배운 5가지 확신 말씀 중에 구원의 확신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 성경구절은 바로 요한일서 5장 11-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란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2)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3) 예수님이 있는(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딤후1:13)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15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16절). 과거에 어떠한 무시무시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미혹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며 또한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심(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들과 달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들 안게 거하게 합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 이 마지막 때에 비록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생들을 통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심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되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순종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므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29절 말씀 묵상]

“목사들의 목사”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물총새의 불이 붙듯"이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일, 우리가 완전히 몰입해 있을 정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급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시편 1:3).”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압니다(요일2:5).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활을 한 결과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바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쁨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쁨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롬5:5).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은 자입니다(요일2:20). 그러면 성경은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현대인의 성경)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호자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요일5:6).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주님께서 들은 것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때에도 많이 일어난 적그리스도들과 달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20절).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8절). 또한 성령님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대언자이시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1-2절).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3-5절)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므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5절).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므로 마귀를 이기고 있습니다(13-14절).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15절). 오히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17절).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성령님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요일2:27,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요14:26),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성경 교사(bible teachers)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즉,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요 (18절) 거짓말 하는 자들입니다(22절). 이렇게 마지막 때에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23절)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기에(요이 1:7) 사도 요한은 이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성경 교사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도 그 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심 외에 다른 어느 누구의 진리 밖에서의 가르침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20절에서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에(27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20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27절). 그 말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미혹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말하며 가르치는 모든 것은 참되지 않고 거짓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들이 거짓말을 하여 믿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적그리스도들의 거짓된 말과 가르침에 미혹을 받지 말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치심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5:6).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16:13).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진리이신 예수님(14:26)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15:26).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배워서 믿음의 진보와 견고함 속에서 마귀와 적그리스도들의 모든 거짓말과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인 적그리스도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말쟁이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3)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는 말씀에서 ‘نال았다’(born)란 동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You must be born again)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즉,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아 그들 또한 의로운 자들이란 말입니다(롬 4:25). 그러므로 의로운 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언제나 의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받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 생각합니다(막8:35; 롬 1:17).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전하는 것입니다(눅9:2; 행28:31).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을 보면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 상반절에서는 “그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29절에서 ‘의를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1절)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6절). 그러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2절) 또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1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행하셨고(2절)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까?(1절) 그 이유는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는 것(6절)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7-11절).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기에 “이로써 우리가 그의(주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고 5절에서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에서 난 자요(is born of Him),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하심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연히 우리도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7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abide in Him)이요 28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abide in Him)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한 결과는 무엇인가 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주님을 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뵈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할 때(27, 28절), 즉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28절).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뵈게 될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주님을 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생활하는 성도는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MacArthur).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골1:22).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므로(요일2:5)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벧전1:22)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요일2:5).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엡5:27).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요일2:28).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요일2:27).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27절, 현대인의 성경).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며(요15:26)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16:13).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요일1:27).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속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며(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23절)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요이2:7) 거짓 목사, 거짓 성경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요일2:27).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27절). 내주시는 성령님은 진리이시기에(요:5:6) 우리에게 모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14:26)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15:26).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배워서 믿음의 진보와 견고함 속에서 마귀와 적그리스도들의 모든

거짓말과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요일2:29).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로서 주님께서 의로우시고(1절) 의를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의를 행해야 합니다(6절).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7-11절).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 이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압니다(5절).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주님을 뵈기 위해서입니다(28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흠이 없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로 세움을 받길 기원합니다(엡5:27).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10절 말씀 묵상]

이 허무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인자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시90: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전3:11).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입니다(요3:16; 롬5:6, 8, 10). 저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들(helpless)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롬5:6).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에 예정하신대로 나타날 시기에[“기약대로”(6절), 박윤선] 경건히 앓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the sinners)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8절). 요한일서 4장9-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3)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롬5:10).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6절),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8 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10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 수록 우리는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나 우리는 향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문제의 뿌리입니다(말1:2). 예수 십자가 대속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마음은 다양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한 2주 전 새벽기도회 때 묵상하다가 생각난 요셉에 관한 창세기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즉,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 하다가(창37장)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지만(39장) 결국에 가서는 그의 나이 30세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므로 애굽의 총리가 된 말씀입니다(41장). 저는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애굽에서 노예였던 히브리 청소년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오래 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로마서 5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석 절 말씀을 강조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란 말씀(롬5:6)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8절) 그리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10절). 저는 이 석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의 신분 변화보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연약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정도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지금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면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만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 상반절에 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신학적으로 간략하게 말한다면, “구원의 서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서정”이란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방법’)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마음과 생활에 주관적으로 실현(적용)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용어”입니다(인터넷). 이 구원의 서정(순서/방법)은 9가지입니다: (1) 소명(부르심), (2) 중생(거듭남), (3) 회심(회개), (4) 신앙(믿음), (5) 칭의(의롭다 여김), (6) 양자(양자 삼으심), (7) 성화, (8) 성도의 견인, (9) 영화. 이 9가지 순서 중 여섯 번째가 바로 “양자”,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양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습니다(15절).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6:17, 20).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죄에게 종노릇”했었습니다(롬6:6). 그 때 우리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음](7:5). 그 때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8:44). 한 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욕심대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워 알고 있듯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비 마귀의 자녀로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특권)이 주어졌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너희가 그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아 그들 또한 의로운 자들입니다(롬 4:25). 그러므로 의로운 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언제가 의를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요일2:1)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6절).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7-11절). 요약하자면,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의를 행하는 자”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에게서 난 자요(is born of Him),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3:1).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 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절)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2장 27절과 28절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생활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10절 말씀 중심으로 한 5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1, 2절). 그들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롬8:15).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는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현대인의 성경).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썼을 당시인 1세기 때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2:22)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23절)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했습니다(요이1:7). 이러한 마지막 때에(2:18)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불신자들이(22절,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3:1, 2) 우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현대인의 성경)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 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의 문맥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14절) 또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현대인의 성경)과 “신령한 자”(15절) 또는 “영적인 사람”(현대인의 성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면서 바울은 “신령한 자”(영적인 사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7절) “영광의 주”님을 알고 있지만(8절) “육에 속한 사람”(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이 세상의 지혜”(6절)만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8절). 그리고 바울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였지만 (9절)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12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14절).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육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요일3:1).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1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현대인의 성경)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외국인”이 누구입니까? “다른 나라의 국민”입니다(사전).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증언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삶의 터전을 떠나 사는 사람”입니다(성경사전).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히11:14).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16절). 즉,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로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1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후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웁니다.

[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 받아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도의 죽음을 접할 때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살전 5:13). 그 이유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14절). 더 나아가서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슬퍼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14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습니다(롬12:12).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교회를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소망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 한 생활을 하며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자주 하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김세운). 이러한
종교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김세운).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10절).
그러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실루아노와 디모데)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6절). 그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및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많은 환난(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주님을 본 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십니다. 그 결과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말씀으로 빛으시사 거룩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입니다(인터넷).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행동이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 전절인 28절과 18절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을 위하여 협력하며(2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18절)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 첫째로, ‘미리 아심’이란 존스토트와 존 머레이의 말대로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와 실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28절).

(2) 둘째로, ‘미리 정하심’이란 예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두 번째 행동인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셨다 혹은 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또는 명하신 우리의 운명은 바로 예수님을 닮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은 협력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되도록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랑받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3) 셋째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두 가지 행동인 ‘미리 아심’(미리 사랑하심)과 ‘미리 정하심’(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명)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 위해서란 말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두 번이나 말한 후(1, 2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신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3절). 그 소망의 메시지는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 받아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2절). 흥미로운 점은,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한 결과로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주님의 나타나심, 즉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3장 2절에 와서 다시금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저는 이 두 성경구절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고전15:51)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것입니다(요일3:2).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2절, 고전13:12).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요일3:3)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입니다(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그 순간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과 후렴 가사가 생각납니다: (1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후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 요즘 손을 올바르게 잘 씻고 계신지요? 왜 우리는 손을 올바르게 잘 씻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연구진은 2015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 게 그 결과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 23번 얼굴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 중 입, 코, 눈 같은 얼굴의 점막 부위를 만지는 횟수는 44%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매우 위험하냐면 입과 코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무의식중에 얼굴을 많이 만지는 만큼 손을 올바르게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발행하는 '하버드 헬스 레터'는

수돗물과 비누를 사용해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는 시간 동안 손을 골고루 씻어내면 박테리아의 90%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아내가 만들어줘서 제가 교회에 부엌과 화장실에 붙여 놓은 올바르게 손 씻기 방법대로 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생일 축하 노래”가 아니라 “예수 사랑하심은”(Jesus loves me this I know)을 부르면서 손을 씻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어떻게 제거하는 줄 대충 아시죠?(잠 25:4) 은을 용광로에 넣고 높은 열을 가하여 불순물인 찌꺼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물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여러 번 높은 열로 제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대장장이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높은 열과 싸우고 수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원하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인터넷). 잠언 17장 3절을 보십시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마치 대장장이가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높은 열로 은을 제련하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자 “고난의 풀무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사48:10).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육신적이고 이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처럼 들어 있을 때에 우리들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제하고 이에 대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연단의 불인 시련과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인터넷). 그 좋은 예가 바로 구약 율기에 나오는 율입니다. 성경 율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 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잠언 25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리하면 장색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쓸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 불을 지나가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 시키셔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잠30:5). 그 말씀은 시편 12편 6절을 보면 “...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현대인의 성경) “... 확실하여 용광로에 일곱 번이나 정련한 은처럼 순수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수한(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사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에(2-3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일서 3장 4-5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씀(5절)이 예수님의 깨끗하심이란 말입니다(3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요일3:5).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장차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에(요일3:2) 성경은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저는 이 말씀을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이 말씀이 내포된 뜻은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미래의 소망입니다(3절). 마지막 나팔이 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되(고전15:51)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낮은 몸”(“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사 자기의 “영광의 몸”(“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빌3:21). 그 영광의 몸은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2)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신자(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기에 (롬6:4)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으므로(5절)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2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6절).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3) 우리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으므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지만(롬6:4-5)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 전까지(고전15:51, 빌3:21, 요일3:2) 현재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소망과 우리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울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미”(Already) (과거)와 “아직도”(Not yet)(미래) 사이인 교회 시대(church age)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오해하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이미 받았기에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잃지 않는다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 담대하게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은 행함(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엡2:8-9, 롬8:22-24). 구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형입니다. 구원의 과거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요일5:12-13). 구원의 미래란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행16:31, 롬10:9). 구원의 현재란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빌2:12). 그러면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의 완성) 사이에 현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원”이란 영생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십시오’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답게 사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천국백성)들답게 사는 것은 바로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마22:37-39).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빌2:13).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힘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시사(갈5:22-23)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된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지만(롬6:4-5)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 전까지(고전15:51, 빌3:21, 요일3:2) 현재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목상한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아 우리 또한 의로운 자들이란 말입니다(롬 4:25). 그러므로 의로운 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언제나 의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장차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 전까지 이 교회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일2:1)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6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는데(6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7-11절). 예수님의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먼저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 첫 번째 계명대로 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장

15-17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는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3:3)은 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의 행하는 것이란 첫째로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2:15-17). 그 다음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종계명 중 두 번째 계명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장 3-11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의 순종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5절). 그리고 그는 빛 가운데 거하여[“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 자기 속에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님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이웃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11절).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사죄의 확실 구절인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2:1)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2절)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1:9). 여기서 “화목 제물”(propitiation)이란 단어는 “만족”(satisfaction)이란 의미로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받쳐져 죽으시므로 죄를 형벌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케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MacArthur). 그리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위험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죄를 고백했으므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모든 불의(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9절) 사탄은 우리가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하여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이 재판장이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기소(prosecutes)를 하는 장면이 상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MacArthur).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make a false charge)(계12:10). 그 때 우리는 사탄의 참소의 소리를 듣고 죄 사함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피고를 돕는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 하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후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넷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 지금 교회 안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마 15:14).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린(호4:6) 영적 맹인 목사님들이 성경을 비성경적으로 해석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므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세뇌시켜 그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따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인도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것 같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이기(롬 10:2) 성급함 속에서 잘못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잠19:2). 잘못 가되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들이나 모두 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비성경의 하나님이기에 결국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사10:11). 그 범하는 죄 중에 제일 심각한 죄는 교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함이란 우리 스스로 “나는 총명한 자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9:13).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13절)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큰 체를 하고 있습니다(15절).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같음이로다”(15절).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써주시면 감사 그리고 안 써주셔서 감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불만족한 마음과 위선된 입술로 불평과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참고: 17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사 (사9:12, 17, 21; 10:4, 25) 우리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징벌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일으켜 우리를 치게 하실 것입니다(9:1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대기로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1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들을 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또한 그 분을 찾지도 않으므로 말미암아(13절)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영적 맹인 지도자들을(9:16) 끊으실 것입니다(14절).

우리는 미혹하는 지도자를 주의해야 합니다(막13:5). 우리는 성경을 비성경적으로 해석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목사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마24:11). 우리는 결코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 멸망을 당해서는 아니 됩니다(사9:16). 우리는 결코 진리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약5:19).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 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고후11:3).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22절).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입니다(22절). 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기에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18절). 또한 이 “미혹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요 “홍악한 자”들입니다(13, 14절). 그리고 이 악한 자들과 홍악한 자들은 “마귀”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 10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7절에 권면한 후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마귀에게 속한 자들, 곧 마귀의 자

너들은 죄를 짓는 자들로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궁극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는 것인데 그 죄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가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 이미 2장 9절과 11절에서 말을 했는데 그 요점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으며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어둠에 행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하나님과 교제한다”(현대인의 성경)]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1:6). 이러한 생활은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3:8). 이것은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참고: 2:22). 이것은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26절).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거슬러(27절)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어기면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7-9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이 진실 되지 않고 거짓되게, 깨끗하지 않고 더럽히게 만들고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고후11:3).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시95:10).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의 미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2:14, 현대인의 성경). 그러

기 위해서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경험해야 합니다(1:1, 2).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2절)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7절).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계명의 순종하여 우리 이웃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3:1, 2).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현대인의 성경) “...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하고 염려(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31,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33절). 우리의 우선 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다국어 성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눅11:20; 참고: 마 12:28). 이 말씀을 보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것은 과거형이라는 말입니다.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형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 11절을 보면 성경은 “...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9절), “...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11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현대인의 성경)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과거형과 미래형으로 둘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Already) 임했다는 것과 동시에 “아직도”(Not yet) 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요일5:13)과 또한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롬8:23, 빌3:12-14)과 더불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빌2:12),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구원의 삼중성(인터넷)]. 즉,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도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와 “아직도”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질문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7절 후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현대인의 성경) “...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다시금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2:1)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6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는 것입니다(7-11절). 즉,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마22:37-40). 저는 이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이미 요한일서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첫째로, 의를 행하는 것이란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2:15-17).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라고 말했습니다(살전4:3). 둘째로, 의를 행하는 것이란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요일2:5).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알게 됩니다(5절). 그러나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현대인의 성경)](3:10).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1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2:1, 6).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이중계명을 순종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이중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 받아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종계명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1-24절 말씀 묵상]

여러분, 여러분도 “변질하는 사랑이 아닌 변화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랑과 신부라면 하나님께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증인이신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부부는 서약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부부의 사랑이 변질되어 가므로 말미암아 그 서약에 불충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서로가 그리고 크게(뜨겁게) 사랑하더니 이제는 그 사랑이 점점 작아지고(식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부부가 주님 중심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주님 중심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점진적으로 더욱더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부부는 점진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가므로 더욱더 풍성해 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가 주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므로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서약한대로 사랑하든지(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사랑) 아니면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모르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지 또는 모르므로 세상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므로 결국에 가서는 변질되던지(점진적으로 변질하는 사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진적으로 변질하는 사랑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3장 1-1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1, 2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미 5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1절). (2)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 받아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2절). (3)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3절). (4)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7절). (5)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7절). 여기서 의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2:1)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6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는 것입니다(7-11절). 즉,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마22:37-40).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쓴 후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한 후 18절에 가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고, 23절에 가서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1절, 현대인의 성경)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11, 18, 23절). 저는 그 권면을 구조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15절까지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15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 그리고 두 번째로 16-24절까지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24절),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23절).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돼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믿음과 순종을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연관성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약2: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약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약2:20)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현대인의 성경)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약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며(렘42:6, 14, 21)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11:6).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요일3:23).

그러면 먼저 우리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1-15절 중심으로 한 4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 같”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이 우리가 주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한번쯤은 그 반대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란 제목 아래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려고하기 보다 너무 빨리 오해하는 사람, 진심으로 칭찬하기보다 비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참고 인내하기보다 너무 쉽게 함부러 분노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기보다 자기 주장하기 바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지금 성경은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란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맏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창4:1-2). 그에게는 동생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습니다(2절).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3-4절, 현대인의 성경). “이 일로 인해 가인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분하여(5절) 결국에는 동생 아벨과 들에 있을 때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8절). 이렇게 가인은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4장에 근거한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에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현대인의 성경) “...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했냐면 그 이유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아벨)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위가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12절).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죽였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대로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고 또한 가인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이지만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 창세기 4장 7절 말씀과 좀 연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현대인의 성경)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는 말씀은 선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죄가 당신 문에 웅크리고(crouching)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면서 잡아먹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가인의 마음 문에 웅크리고 엮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4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5절).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5절). 그것을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고 말씀하신 것입니다(7절). 죄가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가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8절). 그 결과 가인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의 대적 마귀(벧전 5:8)에게 저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결국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웅크리고 있었던 사자 같은 사단의 밥이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요일3:12,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마귀는 가인의 마음에 동생 아벨을 죽이라는 생각을 넣었습니다(요13:2).

저는 “마귀”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보면 “마귀”는 “욕심대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마귀에게 속한 가인은 그의 이름의 뜻인 “획득” 또는 “소유”대로 그는 소유욕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김희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자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분하고 투기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되 동생 아벨을 살인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우리의 형제를 질투해서 살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가인과 같이 되지”말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고린도인이 되지 말라”는 교훈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음행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인터넷).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성경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가인과 같이 되어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욕심내며 설로 죽이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현대인의 성경)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악한 길을 따르고 …”]. 우리는 가인의 악한 길로 행하지 말고 도리어 의로운 아벨의 의로운 길로 행해야 합니다(요일3:12).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또는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히11:4).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3-24절 말씀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우리 형제, 자매에게 원망들을 만일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그 형제, 자매와 화목을 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화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와 화목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등,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되(요일2:6)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3:10). 즉,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10절).

둘째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또는 미워한다 혹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미워하면 그것은 먼저 우리의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이미 말했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달리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당연하다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현대인의 성경)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이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사도 요한의 말씀들을 보면 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아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한 2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주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2장에서 2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 사도 요한은 주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거짓말쟁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에게서 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데 거짓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짓말쟁이란 말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주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들로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요일2:3).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므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5절).

(2) 사도 요한은 주님께 속한 자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현대인의 성경)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 후 9절에 와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둠에 있는 자들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들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요일2:9). 성경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3:13).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십시오: ”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인 신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빛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계명 순종의 삶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엡 5:11). 당연한 것 아닌가요? 빛이 어둠에 비취면 어둠의 일을 당연히 들어나지 않나요? 이와 같이, 빛의 자녀들인 신자들의 빛 된 삶은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을 들춰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요일3:13).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15절) 세상이 사랑하는 자입니다(13절). 세상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10절).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10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3:1, 2)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13절).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에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합니다(10절). 그러기에 그들은 의를 행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1, 2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1절). 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기보다 당연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므로 이 세상이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minimum wage)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0년 1월 날짜로 직원 또는 종업원이 25명 미만인 경우는 시간당 \$12이고, 26명 이상이면 시간당 \$13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1980년대에 최저 임금은 \$3.10이었으니까(인터넷) 약 40년 사이에 거의 \$9-10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직원이나 종업원은 일한만큼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받되 성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할 “그 품삯을 당일애 주고 헤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신24:15).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15절). 신명기 24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품삯을 해가지기 전에 지불하십시오.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품삯을 당일애 주지 않으면 그가 그 일을 여호와께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받는 봉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도 군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봉급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 1세기 당시로마 병사들이 받는 봉급은 “하루치의 양식을 받기도 하고, 의복을 받기도 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나 그 당시 노동에 대한 보상 또는 보수로 받는 것을 가리며 “값”(wages)이라고 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현대인의 성경)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망”이란 단어가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사망”이란 단어를 3가지 의미로 사용 했습니다:

(1) “사망”이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은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롬5:12).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즉 아담의 원죄(original sin)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사망, 즉 영적인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분리된 자들의 상태를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한 3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a) “우리가 아직 언약할 때”[(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롬5:6), (b)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8절), (c)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10절).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사망”이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육체적인 죽음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의학적인 관점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은 단순히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리 되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 “사망”이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죽음”이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을 가리킵니다(계 20:6, 11, 14; 21:8).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모든 인간이 영원히 처하게 될 최후의 사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최후의 사망의 상태란 최후 심판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하게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말했을 때 “사망”이란 의미는 이 성경적인 3가지 의미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즉, 죄의 삯이 사망이란 말씀은 죄의 삯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사도 요한은 두 그룹의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의를 행하”되(10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2:6) 주님의 계명인(3, 4절)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고(3:11), 다른 한 그룹은 “마귀의 자녀들”로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10절). 사도 요한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말한 반면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14절). 이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대조한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만,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사망에 머물러 있는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미워합니다(15절).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란 말입니다. 즉,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요 육체적으로도 죽을 자요 또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또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6:23, 현대인의 성경). 비록 한 사람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만(5:12) 또 다른 한 사람이신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15절).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의미는 ‘당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십시오’(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답게 사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답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빌3:20)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곧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마22:37-39).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시사(갈5:22-23)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요일3:14, 현대인의 성경).

넷째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현대인의 성경)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식구이든 교회 식구이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에 있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주일 예배 당에 올라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마5:23)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 예배당에 올라오면서도 부부가 서로 다툰 때도 있고, 자식들과도 언짢은 일도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 서로 간에 좀 꺾고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마5:24).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왠지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로 껄끄러운 관계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예배당에 올라와 서로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신뢰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unity)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을 가리켜 성경 요한일서 2장 10절은 ‘거리낌이 없는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관한 거리낌이 있다면 그 거리낌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11절).

성경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1:5).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6절). 성경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므로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11). 어두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11절).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으므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미움으로 차 있는 어두운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 형제의 사랑조차도 받기를 거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2:9).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지 못한 자입니다(5절).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현대인의 성경)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3:13). 어느 면으로 보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형제가 서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살인하면 우리는 칼로, 총으로 등등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중 7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출20:13).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12:31)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5:28). 실제로 그 여자와 간음했다 라기 보다 “음란한 마음”(호5:4; 겔6:9)으로 그 여자를 보았다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는 말입니다. 즉, 음란한 마음은 간음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요일3:15).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살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실제로 그 형제를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12절에서 실제로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인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천국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합니다(마22:37-39). 그러나 주님의 계명의 불순종하여 형제를 자신 같이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미워하여 마음의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요일3:15).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살인죄를 범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15절).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살인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요(14절), 세상이 사랑하는 자요(13절) 그의 행위는 악합니다(12절).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라도 살인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기를 더디 해서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즉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3:10,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18절 중심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일3:24),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하면 4-7절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 13장보다 요한복음 15장 12-14절이 더 생각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가면 갈수록(엡3:19)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서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6절상).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나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성도들이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로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8절 말씀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8절). 기록하시고 의로우시사 죄를 미워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김창세). 또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 15,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지만(사53:10) 성자 예수님 또한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길 원하셨습니다(요10:11, 15, 17, 18).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빌2:8; 요14:21) 동시에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요10:11, 15, 17, 18).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18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29절) 양들을 위하여(11절)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10절). 한 마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이유는 “양들”(11절)에게 “영생”을 주시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28절).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요일3:16).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16절).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5:13). 우리 모두 작은 일부터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희생 하십시오. 희생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까지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현대인의 성경)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와 재물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과연 우리에게 부와 재물이 많은 면 행복한 것인가요? 성경 전도서 6장 3절과 6절을 보면 “행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his prosperity)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3절),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his prosperity)을 보지 못하면 ...”(6절). 이 말씀을 보면 “행복”이란 단어를 영어로 “prosperity”라고 번역하였는데 여기서 prosperity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입니다(2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와 재물의 축복은 우리의 행복이란 말입니다[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창39장)]. 우리가 하나님께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와 재물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는 축복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을 축복을 주십니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함을 통해서 부와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3)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4) 우리가 그 부와 재물의 축복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전도서 6장에 가서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6:1).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절). 그 불행한 일이란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부와 재물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 사람입니다(2절). 아무리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천 년의 갑절 이라 할지라도(3, 6절) 하나님께 받은 부와 재물의 축복을 자기 자신이 누릴 수가 없다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와 재물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도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린다 해도 헛된 쾌락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그들은 어리석게도 풍부한 재물을 누리지 못합니까? 저는 그 이유가 전도서 5장 1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왜 풍부한 재물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재물의 소유주가 자기의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왜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재물을 왜 지키는 것입니까? 그 근본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 돈(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에 생명을 받침은 해로운 일이다”(박윤선). 참 큰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지키려고 했는데 그 재물을 재난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리게 되므로 말미암아 결국 자식들에게도 물려줄게 하나도 없이 빈손이 되는 것을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보았습니다(14절).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15-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 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결국 이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해도 우리가 죽을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해하면서 재물을 풍부하게 모아쓰는 무엇입니까?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그 모았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결과 성경은 “일평생을 어두운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7절). 결국 미련한 부자는 평생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를 한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능을 주셔야 우리가 재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풍부한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누리게 하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그 받은 축복을 누리야 할까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도 요한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시는 않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12:21). 이러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재산을 쌓아 두는 자입니다(21절). 그리고 잠언 28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요일3:16)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재물 뿐만 아니라 자기 몸까지도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자기가 가진 재물도 사용했는데 그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빌4:14).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시초에”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두 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줬습니다(15-16절). 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방인 형제들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형제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바울에게 주므로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롬15:26)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25, 31절). 성경 시편 112편 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는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1-2절). 이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구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4절). 그러므로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어떤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눅7:2, 5).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되 재물을 가지고 궁핍(가난)한 형제를 도와줘야 합니다(요일3:17). 성경 잠언 14장 24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되 주위에 궁핍한 형제, 자매를 물질로도 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재물은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를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대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닳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합니다. 제가 2018년 10월 말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런 짧은 묵상의 글을 썼습니다: “거짓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멀리함(따돌림)을 받으며 욕을 먹고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눅6:22, 26).”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부터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그리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정민이란 사람이 쓴 “고난이 선물이다”란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어디서나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조정민).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진실 된 사랑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2018년 12월 말에 “진실 된 사랑의 눈물”이란 제목 아래 이런 짧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가에 눈물을 엿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충분히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눈물은 진실 된 사랑의 눈물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눈물 중 끊이지 않는 간절한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며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사랑의 기도의 눈물은 거짓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진실 된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왜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한 것일까요? 혹시 그 이유가 가까운 문맥인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중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요? (17절, 현대인의 성경) 혹시 그 이유가 그 성도들 중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10절, 현대인의 성경)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15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2:11) 그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사도 요한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고 권면한 이유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되시되(1:1-2) 육체로 오시고(요이1:7)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서(요일2:2)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되(2:17)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4:11).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11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약2:14, 17, 20, 26).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요일3:11)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18절, 현대인의 성경)은 죽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것처럼 순종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란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을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서로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빌1:8)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솔직하고 분명하며 투명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되 우리는 ‘나-중심’적인 대화를 하기보다 ‘상대방-중심’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원해서 말을 하기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길 위하여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후 행함이 없다면 우리 마음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잠14:23). 예를 들어,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면 우리 마음에 당연히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말로만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하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 알 수가 없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할 수가 없습니다(요일3:18-19).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행함이 있는 진실 된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행함이 있는 진실 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9-24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 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을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란 말은 죄악 된 세상과 구별된 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란 바로 죄악 된 세상과 절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빛의 자녀인 성도는 어두운 세상과 짝지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17:16) 빛 되시는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쓴 편지 요한일서에서 우리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소속해 있다는 사실을 4가지로 대조를 했습니다. 그 4가지란 빛과 어둠(요일1:5), ‘진리’와 ‘거짓’(6절), ‘사랑’과 ‘미움’(2:9) 그리고 ‘의로움’과 “악” 또는 “불의”입니다(3:12).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빛과 진리와 사랑과 의로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어둠과 거짓과 미움과 악 또는 불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진리 안에 거하여 의로움을 행하되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로써”란 말은 18절의 말씀한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야 말로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성도야 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에 속한 성도야 말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속해있는 성도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므로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20절) 앞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21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이미 말한 “거리낌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3:2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2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 즉 주님의 계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23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합니다(19절).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21절).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22절).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즉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2, 23절). 이러한 순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를 기억하시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며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복음성가 가사를 생각할 때 받는 교훈은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한 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한복음 15장 4-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도 그는

“그의 안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말과 “산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두 구절에서 ‘주님 안에서 살라/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는 의미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5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주님에게 붙어있다는 말이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도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 안에 거해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요15:5).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거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6절)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것입니다(5절). 그 말은 즉, 주님 안에 산다는 자(거한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9-10절의 말씀으로 좀 달리 말한다면, 주님 안에 산다는 자(거한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1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시라”[(현대인의 성경)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산다는 자, 즉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3가지를 연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시하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란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요일2:5-6).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넘칩니다)(요15:11).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24절하). 이 성령님은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시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랑이란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갈5:22).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케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므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축복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가인같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세상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 자매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 것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계명의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요한일서 3장 14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적인 죽음”과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될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하게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김창세). 그러나 “영생”(영원한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화목)되는 것이요(롬5:10-11),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17:3) 또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요일1:2-3),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은 변화하던지(그 때까지 살아있다면) 또는 부활하여(죽었다면) 영혼과 연합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그 문자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1)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2) 질적으로 “인간의 삶과는 다른 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인터넷). 그러므로 “영생”이란 말에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이란 의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적인 삶이란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의 의미는 공관복음(마태/마가/누가복음)처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도 의미하지만 그보다 ‘현재에 누리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5:12,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1:2; 5:20, 현대인의 성경)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3:14,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되(23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15:12).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1:2; 5:20)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요일3:23)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성경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4절).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15:5). 여기서 “열매”란 무엇일까요? 다시 자문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맺는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열매”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중적인 열매(twofold fruit)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또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중적인 계명(twofold commandment)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할 때에(마22:37, 39) 맺는 이중적인 열매(twofold fruit)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벧후1:4)으로서 그 의미는 성령님의 성화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또한 성령님의 열매(fruit)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5:22-23)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을 믿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인 현재에 우리는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요17:3; 요일1:3)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내세의 축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의 성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우리는 내세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일4:8, 16)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3:1, 2, 현대인의 성경).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4:19)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10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셔서(9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3:1, 2).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2:2; 3:16)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3:5). 지금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2:1,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3:9; 5:1, 4)]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4:9)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5:11)을 현재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누리게 하고 계시되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롬5:5)의 열매를 맺으시사(갈5:22)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22:37, 39)는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의를 행하게 하시므로(요일2:29; 3:10)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천국 생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되 천국의 총만한 기쁨(1:4)과 놀라운 평강(요20:19; 골3:15)을 맛보게 하고 계십니다(롬14:17).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요일4:11).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7-8절,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1절).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1:3)(수직적인 사랑의 교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자매)를 성령님의 열매인 하나님의 사랑으로(갈5:22) 마땅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요일4:11)(수평적인 사랑의 교제). 이렇게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3:14,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되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16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만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녀라면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어(2:5) 우리 속에 거리낌이 없고(10절) 또한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습니다(3:21-22).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17절, 현대인의 성경)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3:10) 또한 아직 그대로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14절). 달리 말한다면,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옛 사람의 상태인 사랑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 왔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목적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1,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죄”란 “어둠에 행하”는 것이요(1:6), “거짓말하는” 것이요(6절; 2:4), “행위가 악”한 것(불의한 것)이요(3:12), 한 마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2:9). 성경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성경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장이에 불과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6, 현대인의 성경). 즉, 성경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서(3:18) 마음속으로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요(10절), 행위가 악한 것이요(12절) 또한 “살인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다(15절, 현대인이 성경)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14, 현대인이 성경).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수직적인 사랑의 교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수평적인 사랑의 교제).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성화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이중 계명(twofold commandment)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마22:37, 39) 또한 성령님의 열매(fruit)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5:22-23)라는 이중적인 열매(twofold fruit)을 맺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중적인 열매로 우리가 진정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참고: 마7:16).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뱀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 뱀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심성 있게 대처하여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뱀이 지혜롭다는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뱀의 지혜로움은 모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마 7:15; 10:16).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즉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양”과 “이리”를 말씀하셨습니다(7:15).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거짓 선지자들의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은 양 같이 보여서 우리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 오지만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략질”이란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는 ‘강도나 사기꾼과 같이 극심하게 탐욕스러운’이란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10:16).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한 4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험하라’(test)입니다. 이 ‘시험하라’는 단어는 금속의 순도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금속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공학자의 용어라고 합니다(MacArthur). 그래서 저는 금속의 순도와 가치를 결정하는 금속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글들이 있지만 전문 용어가 많고 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항동부 교회 “박기종” 목사님이 “순금과 정금 차이”란 제목아래 쓴 글이 있어 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금(24K)에도 불순물이 들어 있다. 순도 표시의 최고 가치는 100%에서 0.1%를 빼고 99.9%라고 표기한다. 광석이 들어오면 일단 용광로에서 녹인다. 금이 나오기까지 3개의 용광로를 통과한다. 1000도 이상씩 3000도 이상의 고난을 극복해야 순금이 된다.” 한국에서 최고의 금을 생산하는 회사는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LS-NIKKO 동제련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의 귀금속 팀에서 금을 만들고 있는 최용실(34) 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련 과정에서 먼지만한 불순물이라도 들어가면 순금을 만들 수 없다. ... 순금을 만들려면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보일 때까지 연단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있다. ... 특히 금을 만드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 사랑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박기종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용광로에서 노폐물이 제거되어 정금이 되듯이 고통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든다. 예수의 용광로는 정금을 만든다. 제련소의 용광로는 순금을 만들지만 예수의 용광로는 ‘정금’을 만든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옴의 신앙고백은 감동의 백미이다”(인터넷). 옴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삼상16:7).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시51: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잠17:3).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므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말3:3).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성경 이사야 48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되 고난의 불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I have tested you in the furnace of affliction).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분별하라”(test)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시험하라’(test)또는 ‘살피라’(examine)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4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할 때 성경의 원리, 교리, 약속, 교훈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과 비교하고 자신의 결정에 앞에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상고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이 일을 하려는 목적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질문을 해 봅니다.

(b)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바를 순종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명령하신 바를 순종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 기도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d)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되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원리를 찾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특정한 단어들이나 증거가 될 만한 문장을 찾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e)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을 잘 아는 먼저 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f)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경험도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분별하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물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연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a) 하나님의 뜻은 ‘빛을 발하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그가 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8:12).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을 향한 빛이신 주님의 뜻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빛을 행해야 합니다.

(b)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행하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교제)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자들로서 어둠에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14:6). 우리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거짓이 없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c)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시라(1:5),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요8:12)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시다(요14:6)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라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8,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3:11, 23).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d) 하나님의 뜻은 ‘의를 행하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과 6절을 보십시오: “...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신대로 우리 또한 의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를 행해야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의를 행한다는 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의를 행하는 것이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받으며,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받으시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진리를 행하시며, 미움이 가득 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받으며, 진리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므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2) 우리 자신을 살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취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6-8절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필 때에 이렇게 자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기보다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4가지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봄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가르쳐 준 하나님의 뜻 4가지를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과연 나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빛 된 삶으로서 어두움이 없고 오히려 어두움을 들춰내고 있습니까?

(b) 과연 나는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거짓된 이 세상에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진실 된 삶으로서 거짓을 미워하고 주님의 계명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c) 과연 나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의 삶이 되어서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드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d) 과연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발하고, 진리를 행하며, 사랑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를 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3) 우리는 상대방 지체의 사랑이 진실한지를 시험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심과 비교하여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그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란 말씀을 통해 상대방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9절 말씀인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에 근거에서도 상대방의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을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 지체의 사랑이 진실한지를 시험할 수 있는지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a) 상대방 지체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겸손한 사랑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성육신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요이7).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저 앉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빌2:6-8).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을 달리 말한다면 스스로 낮춰서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상대방 지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시험해 봐야 합니다.

(b) 상대방 지체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화목케 하는 사랑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 사랑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c) 상대방 지체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상대방 지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기준은 그 지체가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입니다.

(d) 상대방 지체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상대방 지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네 번째 기준은 과연 그 지체가 나를 말로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지체의 사랑이 진실한지를 시험해 보려면 그 지체가 나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말로만 하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4)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22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현대인의 성경)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취하고 유혹하는 자의 유혹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취하고 불신을 버렸고, 사랑을 취하고 미움을 버렸으며 또한 소망을 취하고 절망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취하고 불신을 버리며, 사랑을 취하고 미움을 버리며, 또한 소망을 취하고 절망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22절 말씀을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한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빛을 취하고 어두움을 버리며, 진리를 취하고 거짓을 버리며, 사랑을 취하고 미움을 버리며 그리고 의를 취하고 불의/악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무턱대고 믿어야 하나요?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조차도 성경에 근거해서 맞는 말씀인지 아니면 틀린 말인지 분별해야 하나요?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했다는 말입니다(공동번역). 이 말씀을 현대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날마다 연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젠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성경을 덮어 놓고 무조건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고,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거짓 복음, 거짓 설교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목사들입니까?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간교한 것을 말합니다(렘23:26). 그들은 거짓된 마음에서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17절)고 말하면서 헛된 위로의 설교를 합니다. 거짓 목사들은 바른 교훈을 전하기보다 듣는 자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 줍니다(딤후 4:3). 경책과 경계와 권면이 없습니다(2절).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힘 있게 하여 계속 죄를 범케 합니다(렘23:14). 거짓 목사들은

성도들을 그릇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13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짓 목사들 자신들이 그릇된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21절 - “달음질”). 자기들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악을 행하되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악행을 범하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에게서 더러움이 나와서 온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수신자들에게 쓸 때에는 이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이 적그리스도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22절) “미혹하는 자들”입니다(26절).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22절). 이렇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나타났기에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4:1).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께 왔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우리는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요일4:1).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말한다면,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라고 권면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는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 다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어떤 이는 다른 영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는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라고 이미 말했는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 와서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다 믿지 말라’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도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른 영을 믿고 있는 지속적인 행동을 ‘멈추라’ (“Stop believing every spirit”)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Believe not’ is in a construction in the Greek text which forbids the continuation of an action already going on”(Wuest’s Word Studies in the Greek N.T. 주석)]. 그 말은,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받은 성령님 외에 다른 영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 무슨 다른 영들이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미혹하는 영”들(deceitful spirits)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귀신의 가르침”(doctrines of demons)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사도 요한이 성령님 외에 다른 영들을 “demonic spirits”(악한 영들, 악령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MacArthur).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좀 그 질문의 답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 자기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서는 “적그리스도의 영”(the spirit of the antichrist)을 믿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영을 다 믿지 말”라,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 다른 영들을 더 이상 믿지 말라, 즉 믿는 것을 멈추라고(stop believing) 권면한 것입니다(1절).

(2) 우리는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께 왔는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요일4:1).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 다른 영들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께 왔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께 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시험하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원수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겠지만 그가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영이 하나님께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란 하나님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입니다.

이 기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 4가지로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1)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3절), (2)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2:22), (3)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합니다(22절).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23절),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요이1:7). 이 4가지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 다른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요일1:2). 즉,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을 시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인정하며 고백케 합니다(MacArthur)[(요일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humanity)과 신성(divinity)을 시인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4장 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롬1:6)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7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드리는 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책임은 죄악 된 세상과 절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빛의 자녀인 성도는 어두운 세상과 짝지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성도의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요17:16). 우리는 빛 되시는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긴 비결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짓 선지자들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인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귀보다 크시기에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거짓 선지자들:

(벘후 2: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하게 할 이단”,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마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24:11, 24)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 마귀:

(요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벧전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일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20:2, 10)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는 자들로서(마24:11; 계20:10)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마24:11, 24).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해 한 말씀을 보십시오:

(요일5:6) “... 성령은 진리니라”

(요일3:24; 4:13)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서는 진리의 성령님으로서(요16:13; 요일5:6)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요15:26),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요14:26),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사(요16: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줄 압니다(요일3:24; 4:13). 그 결과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깁니다. 그 이긴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서는 지금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거짓 선생들/거짓 목사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라는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며 굳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성경은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딘 칼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전10:10). 이와 같이 성령의 겸인 하나님의 말씀(엡6:17)이 무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인드(mind)가 날카롭게 돼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 사람(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 민감함이 둔해져서(spiritual insensitivity)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므로(lack of spiritual discernment) 혼동(confusion) 속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해 이리 저리 헤맬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인드 날카롭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서

어는 문은 닫으시고 어는 문은 열어주시는지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보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서 시기와 분쟁의 죄악 된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초보자인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특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의 하나 됨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5-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2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들, 마귀의 자녀들, 거짓 선지자들)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해 한 2가지로 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1)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을 한다는 것입니다(5절).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로써(1절)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영이 그들을 통해 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WBC). 이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세상에 속한 말이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말들로서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16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며 삶에 대한 자랑하는 말들은 세상적인 말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지 않고(17절) 적그리스도가 원한대로 말합니다(18절).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세상에 속한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말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들입니다(22-23절). 한 마디로 간략하게 말한다면,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거짓 목사들/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세상에 속한 말들은 결코 진리가 아닌 거짓말입니다(22절).

(2)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4:5).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거짓 목사들/선생들)이 세상에 속한 거짓말을 할 때에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면서 듣지 결코 사도 요한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 목사/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교리들인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르침,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6절).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3:2)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갖고 있기에(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4:6).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사(2절)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2:2)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3:2)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4:6).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know God)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습니다(be known by God)(갈4:9).

(2)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요일4:6).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 말씀 하면서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4). 그리고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목사들/선생들)을 통해 진리만을 듣습니다(거짓은 듣지 않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주님의 종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지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참된 주님의 종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듣습니다(요일4:6).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 우리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자들과 같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목사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7:15).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거짓 목사를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먼저 우리는 뱀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뱀 같이 지혜로워서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17절). 왜 우리가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4:11).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13:22) 우리는 뱀 같이 지혜로워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및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결”이란 단어의 헬라어 문자적 의미는 ‘섞이지 않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오염되지 않은) 깨끗한](unmixed, pure)이란 뜻입니다(Walvoord). 즉,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시12:6)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벧전1:22).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성경은 우리에게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성경은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미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거짓 목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복음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4장 7-21절]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우고 계시는 우리 승리장로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 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데 우리는 무엇을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선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롬12:9).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위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과연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9절).

우리가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선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10절).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한 5가지를 로마서 12장9-13절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1) 우리는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10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가족과 같이 영적 인연에 서로 끌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10절). (3)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함께 섬겨야 합니다(11절). (4)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특히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12절). (5)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13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저는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21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 16절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여러분, 혹시 “4영리”(The Four Spiritual Laws)라는 전도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4영리라는 전도지는 Campus Crusade of Christ(CCC)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전도지로서 오래 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도지였습니다. 그 전도지의 핵심은 4영리, 즉 4개의 영적 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 (1)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내가 온 것은 양(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10:10).

- (2)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6:23).

(3) 세 번째 영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고전15:3-6).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5).

(4) 네 번째 영적 원리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제가 이 4영리가 생각난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4영리 전도지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보면 저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이 두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시기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또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8절과 16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 이유는 왜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2:24)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23절, 4:7) 그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4:8, 16)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16절)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사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3:1, 현대인의 성경). 즉,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3:11, 23; 4:7).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 하나님은 사랑이시고(4:8, 16), (2)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19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God’s being)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행하심(God’s doing)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our being)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행함(our doing)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 16절에 적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4장 21절까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쪽 다시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제일 먼저 접한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이 2장 29절과 3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끗하시다(pur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8,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찾다가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는 말씀과 성자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깨끗하시다는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신다(또는 시인케 하신다)는 말씀을 찾아 한 2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깨끗하시다(pure)라는 말씀입니다(3:3).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5절). 이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적용을 한다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불성실함과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에 성자 예수님께서 깨끗하시다는 말씀을 적용하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닐까요? 좀 달리 요한일서 2장 5절(참고: 요일4:12)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완전한) 사랑이다 가 아닐까요?

(2)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에는 4가지 중요한 주제인 (a) 빛, (b) 진리, (c) 사랑, (d)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연관성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이러한 결론을 좀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악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론을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이러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4:8, 16).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1:5)의 자녀로서(3:1, 2) 진리이신(1:6)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3:23, 24).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아는 자가 행하는 의입니다(2:29).’

CCC의 4영리의 첫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다시금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God’s being)는 사랑입니다. 그 존재에서 그분의 행하심(God’s doing)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김태광씨가 쓴 “지혜의 소금창고”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한 순간의 연출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 없이 사랑해야 큰 축복을 누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깨끗한 사랑(3:3) 또는 온전한(완전한) 사랑(2:5; 4:12)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과 “세상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9, 10, 14절).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우리가 이미 2장 2절에서 묵상한 것처럼 “화목제물”(propitiation)이란 단어는 “만족”(satisfaction)이란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받쳐져 죽으시므로 죄를 형벌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케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MacArthur).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과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 죄를 속하여(죄에서 구원)(10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9절).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엡2:1).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롬5:12).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6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8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10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므로 (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1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이 나타내신바 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엡3:18-19).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를 속하고(요일4:10), 구원하고, 살리려고(9절)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10절)과 “세상의 구주”(14절)로 보내신 사랑(9-10절)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3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1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바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라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2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화목 제물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므로 나타내신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4: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인정)하는 자들입니다(15절).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3:23).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4:16, 현대인의 성경).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살고) 있으십니다(15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과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를 찬양하십시오: (1절)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마지막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늦게나마 좋아하게 된 책 저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분의 책을 처음 접한 후 그분의 책이 좋아서 웬만하면 그 분의 책을 다 사서 읽었습니다. 그 저자의 이름은 이언 두기드(Iain M. Duguid)란 분으로서 동부 웨스트민스터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그 분의 쓴 “스바냐, 학개, 말라기” 주석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문제의 뿌리입니다 (말 1:2). 예수 십자가 대속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마음은 다양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사야 43장 4절과 49장 15절과 시편 46편 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 그리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 1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4장 9-10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의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propitiation)이란 단어는 “만족”(satisfaction)이란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받쳐져 죽으시므로 죄를 형벌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케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MacArthur).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9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의 첫째 계명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22:37). 여러분,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엡2:1)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롬5:10)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5가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21절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헬라어 의미는 ‘아가패토이’로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divinely-loved ones,” that is, “beloved ones, loved by God”(Wuest’s Word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계속해서(지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서로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for love is from God)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이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source)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7절).

그 말씀을 좀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미움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고 말씀한 후 2장 9절에 와서는 “빛 가운데 있다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에 와서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 사탄은 어둠이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만(10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대조)하고 있습니다(11절). 결국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미움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그 미움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but is from the world).”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15절) 오히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17절).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3:23).

(2)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is born of God)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주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중생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2:2)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3:16)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2:1)를 믿어(3:23) 구원을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중생한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피조물들입니다. 이 새 피조물들, 새로운 사람들, 거듭난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남’(중생)(born again)에 대해서 이미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주님에게서 난 자요(is born of Him),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27, 28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랑하는 자들이야 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4:7).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현대인의 성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8절). 또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3장 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즉,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10절).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1, 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1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10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므로 거듭난(중생한) 자답게 살며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랑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3) 성경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잠언 26장 24-2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는 아침하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그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자는 상대방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매끄러운 말을 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되 자기의 악한 마음을 매우 따뜻한(열렬한) 사랑의 말로 가장합니다(23절). 여러분, 위선적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입술로는 “I love you”(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하는 것, 이것이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나 자꾸만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식”은 “입술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외식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제 안에 이러한 “외식”이 있음을 얼마 전에서야 조금 깨닫게 되어 이러한 글을 씁니다(2020. 9. 2.): 내 안에 “외식”은 먼저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반영해 보므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보기보다 “들보”가 있는 내 눈으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데 빠릅니다.“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42절을 읽다가 묵상케 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에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41-42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어느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양심을 속이는 심각한 죄이다”(성경 해설). 여러분,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가식”이란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마음속으로는 내 이웃을 미워하면서,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가식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20절 상반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 가지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 첫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15절 말씀과 좀 연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본문 20절과 15절 두 구절 다 “누구든지”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두 성경 구절의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그 연관성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15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20절).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16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에(16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20절).

(b) 둘째로 생각하게 된 점은 “거짓말 하는 자”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거짓말 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은 “거짓말 하는 자”는 누구인지 2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 거짓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2) 거짓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두 가지 진리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되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세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진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20절 후반절에서 “...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진실 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2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2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음속으로 온전한 사랑(미움 등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길 기원했고 지금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4)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이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여러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a) “나의 안에 거하라”: (요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b)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시121: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c)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 주리라”: (사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d)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사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e)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노라”: (사43: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성경구절들 중 요한복음 15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을 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3-24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요한일서 3장 23-24절 말씀과의 유사점은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유사점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다른 점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에게서 완전해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2:5; 4:12),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3:24)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2:14), 영원한 생명(영생)이 우리 속에 거한다(3:14, 15)고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4,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4:8, 16)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3:24),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1:1-3)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4:4, 13).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신자들입니다(15절). 그리고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또한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5) 성경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면(완성되면)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일서를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 제가 이 말씀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지난날에 형제, 자매들을 상담할 때 이 말씀이 자주 생각나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체는 결혼하기에 앞서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결혼을 해서 실패할까봐의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뿜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 즉 “온전한 사랑”, 즉 ‘성숙한 사랑’(MacArthur)이 아니기 때문입니다(18절).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2절; 2:5).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보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미워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2:11). 그래서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벌 받을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4:18,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여 사랑을 온전히 이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먼저 사랑하셨듯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뿜습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3개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1) (요6: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2) (요11: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3) (요16: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동일한 저자인 사도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이 석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리낌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걸림이 없다’ 또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걸림이 없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므로 우리 속에 걸림이 되는 것이 없고 실족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므로 우리 속에 거리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마음에 걸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므로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4:17). 여러분,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선 우리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로서(16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19절, 현대인의 성경),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2:4). 우리는 진실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속에는 거리낌이 없을 것이며(2:10),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3:21-22,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2:28, 현대인의 성경).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대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4:8, 16). 하나님은 사랑시기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또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God’s being)는 사랑입니다. 그 존재에서 그분의 행하심(God’s doing)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9-10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과 세상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 죄를 속하여(죄에서 구원하여)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1, 19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21절에서 한 5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4:7상). (2)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7절하). (3) 성경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0절). (4)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5) 성경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면(완성되면)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7절).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5장 1-5절]

지난주에 존 맥아더 목사님의 “흔들리지 않고 목회의 길 지키는 9 가지 비결”이란 제목 아래 쓴 인터넷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의 제목인 책 제목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제 마음에 존 맥아더 목사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목회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약 2 년 전인 2019 년 2 월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50 주년 목회 기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20 대에 목회를 시작한 곳에서 70 세가 넘도록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3 대째 목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특별한 은혜지만, 거의 평생을 한 교회에서 한 성도 무리를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돌보며 살았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며 축복이라고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2019 년 자신이 사역 50 주년을 맞이할 때쯤 “목회, 흔들림이 없이 신실하게”라는 책을 통해 어떻게 그가 사역의 길을 지켰는지, 그가 좇았던 9 가지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이 9 가지 원리들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4 장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 9 가지 원리들을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1.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보자.
2.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큰 특권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큰 자비라고 생각하자.
3. 우리는 마음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런 충성스러움이 참된 진실성을 추구하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하자.

4.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 가지 열정으로 채우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다.
5.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고(시 55:11), 따라서 인간이 만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자.
6. 우리는 인간의 갈채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겸손히 구하자.
7.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자.
8.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잘 알아가고 그들의 용기를 본받자.
9. 우리는 천국과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고, 현재의 고난이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자.

이 9 가지 원리 적용 외에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그 기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 나눕니다: “목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도를 섬긴다. 목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그 힘으로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삶의 굴곡이 있고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며 낙심하거나 일어설 때가 있고 평탄하거나 반대로 휘청거릴 때도 있다. 하지만 목사의 영혼의 닦이 하나님께 내려져 있다면, 그는 흔들리지만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충성스럽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인터넷). 저는 여기서 “목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에 제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3 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제목 아래 한 3 가지로 본문 요한일서 5 장 1-5 절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바로 로마서 8 장 28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어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된 계기는 로마서 12 장 2 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완전)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수많은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뜻 안에 있고 로마서 8 장 28 절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시편 34 편 8 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God is good, All the time!’[하나님은 좋으십니다(선하십니다). 항상!]이라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4 가지 원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1) 하나님의 선하십니다(대상 16:34; 시 86:5; 100:5; 107:1; 135:3; 145:9). (2)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롬 12:2). (3)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롬 8:28). (4)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입니다(시 34:8). 그런데 제가 로마서 8 장 28 절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지 그 구절의 앞부분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란 말씀에 초점을 그리 많이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한일서 5 장 1-5 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저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요한일서에 관점에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 장 3 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1-5 절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 3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1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을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 장 22 절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일어났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8 절).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들, 거짓말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1 절에서 사도 요한이 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 장 21 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한 의미는 그 낳을 아들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의 의미는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로 하면 기름 부은 자란 바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 붓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언자)의 직분을 성별하는 표였습니다(출 29:7; 삼상 10:1; 16:13; 왕상 19:16)(다국어 성경). 즉, 그리스도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1 절에서 말씀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믿는 자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의미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심을 믿으십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King of kings)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딤후 6:15)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7 장 14 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b)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대제사장”(High Priest)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 장 1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 히브리서 4 장 15 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 히브리서 5 장 5, 10 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성경 히브리서 9 장 11 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 성경 히브리서 7 장 21 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므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8:1).

(c)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선지자”(a prophe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18 장 15 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사도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요 1:21)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the Prophet)”고 말했던 것입니다(6:14).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가 신명기 18 장 15 절에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요 6:14).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께서(요일 4:8, 16)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19 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10 절) 또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엡 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살리”시려고(요일 4:9) “자기의 독생자”(9 절)시요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2:1)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2 절) 또한 “세상의 구주”로(4:14)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10 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16 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5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 장 22-23 절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일어났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18 절).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들, 거짓말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5 절에서 사도 요한이 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요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말씀을 빌립보서 2 장 6 절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요한복음 1 장 1 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 장 10 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말씀한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 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고자 했을 때(55 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61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62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대제사장인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습니다(64 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사형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분이신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씀과의 연관성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4 장 61 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왕 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하나이시요 본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한 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왕 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메시아)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요일 4:10)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3:5) 또한 우리를 살리시려고(4:9) 죄 없으신 깨끗한(3:3, 5) 육체로 오시사(요이 1:7) 화목제물로(요일 2:2; 4:10)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사(3:16) 우리에게 구원(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5:11-13).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의미는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의 죄를 속하시고 없애시며 또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사 여러분에게 구원(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멘!’(믿습니다!)라고

마음과 입술로 대답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3)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1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중생했습니까? 여러분은 새 피조물(새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성경구절 고린도후서 5 장 17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1 절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중생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2 장 1 절과 요한일서 4 장 9 절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엢 2:1,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요일 4:9). 즉,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말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 장 4-5 절을 보십시오: “공활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 사람은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으며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었습니다(2-3 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을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중생하기 전에)의 옛 사람은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에 행했고(1:6; 2:11), 거짓말을 하고(1:6), 미워했으며(2:9; 3:15),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으며(2:15), 악을 행하여(3:12), 하나님께 죄를 범했었습니다(8절).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옛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사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1 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로 부터 난 자”(is born of Go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란 말씀은 바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말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 장 7 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 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 장 1 절에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다시 태어난 자란 말씀의 의미는 새롭게 태어난 자(new birth)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는 계속해서/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ongoing faith)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는 새 피조물/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증거(evidence)가 있다는 것입니다(맥아더). 그 증거는 1 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2가지입니다: (1) “날으신 이”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2)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자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2 가지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1)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2)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과 같은 의미입니다(마 22:37, 39). 즉,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요일 5:1),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증거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과 사도요한의 요한일서 5 장 1 절 말씀처럼 (1) 하나님을 사랑하며 (2) 형제, 자매(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2-3 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로마서 8 장 28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로마서 8 장 29- 30 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29 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30 절)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사랑하여 돌아보시는 자들입니다[참조: 시 1:6, 호 13:5, 암 3:2, 마 7:23(박윤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사(일반적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구원을 얻어(유효한 혹은 특별한 부르심) “성도”(롬 1:7)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요일 4:19)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본문 요한일서 5 장 1-5 절 말씀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지 이미 3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1)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1 절). (2)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5 절). (3)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1 절).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2-3 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3 절).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거듭난(중생한) 자들, 새 사람들(새 피조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4 장 21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현대인의 성경)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 장 21 절에서나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3 절에서나 일관성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관성 말씀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4 장 7 절에 근거해서 제가 이런 짧은 묵상의 글을 썼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중생한 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서로 미워하고 있는 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짧은 묵상 글을 쓰게 되면서 배우게 된 점은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중생한 자라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3 절에서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은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4 장 7 절의 말씀과 일관된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3).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데서 끝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대로, 찬양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고백대로, 찬양한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 장 23 절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4:19). 어떻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 장 9-10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 보내시고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3:1, 현대인의 성경).

(2)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3 장 16 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1:1-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2:2) 죄가 전혀 없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3:5, 현대인의 성경). 이 세상에 오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로(4:14) 오셨고 “육체로 오”셨습니다(2 절; 요이 7)(육체로 오신 사랑 혹은 성육신 사랑). 그리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만족케 하셨습니다(요일 2:2)(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3:14,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구원)을 주셨습니다(2:25, 현대인의 성경; 5:11-13).

(3)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4:2)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2:22)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시인케 하셨고(4:2, 15), 우리를 살리셨습니다(9 절)[예수님을 시인케(믿게)하신 사랑 및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3:24, 현대인의 성경)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살게) 하십니다(4:13). 또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4:6)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거하게, 생활하게) 하고 계십니다(2:27,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 거하”게(사랑 안에서 살게)하십니다(4:16).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에 순종케 하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21 절; 참고: 롬 5:5).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요일 4:17). 성령 하나님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18 절).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19 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5:2).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3 절).

오늘 2 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 2020 년 이 맘쯤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약 1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우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여러 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며,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기회로 삼자고 권면했었습니다. 지난 1 년을 뒤돌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새해 2021 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표어를 “영적 성숙의 해”로 정하고 우리 모두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각자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이 한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노력하자고 도전했습니다. 특히 신년 예배 때 골로새서 1 장 9-12 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3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10 절). (2)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9 절). (3)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10 절). 여기서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이란 (a) 선한 열매를 맺는 것(10 절), (b)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것(11 절), 그리고 (c)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12 절). 이 3 가지 교훈을 요한일서 말씀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요일 4:8, 16). (2) 우리는 하나님의 뜻(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라나고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3:23). (3) 우리는 성도다운 생활인 (a)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b) 그 과정에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또한 (c)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요일 4:8, 16). 특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간략하게 묵상했었습니다: (1)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엡 2:1)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요(요일 4:9, 10) 십자가에 버리신 사랑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과 버리신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롬 5:10)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일 3:1). (2)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사랑(2:2; 요이 7) 또는 성육신 사랑이요 또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케 하시고자(2:2)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3:16).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구원)을 받았습니다(2:25, 현대인의 성경; 5:11-13). (3)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신 사랑(4:9)

또는 우리를 거듭나게(중생케) 하신 사랑 또는 우리를 새 피조물(새 사람으)로 만드신 사랑이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2:22) 하나님의 아들이심(4:2, 15)을 시인케 하신 사랑 또는 우리를 회심케 하신 사랑입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6 절) 우리를 가르쳐 주시사 깨닫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 절).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마태복음 11 장 28-30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저는 제가 2009 년 7 월 19 일에 “제가 추구하고 싶은 영성”이란 글을 쓴 것을 제 블로그에서 찾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3 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 나눕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셔서 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 마음이 쉼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고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참다운 영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에의 무게에 눌려서 정신도 못 차리는 그 상태는 참다운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마 11:30). 십자가가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십자가 무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해서 멘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영력이라야 영성이 밀바탕 된 영력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성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제게 주어진 멍에를 메면서도 주님을 사랑해서 멘 것이기에 그 멍에가 쉽고 가볍게 느낄 수 있는 영성을 말입니다. 멍에를 메고도 마음의 불안함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영성을 추구하고 싶습니다(마 11:28, 29).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와중에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영성,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인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마 11:29)을 본받아 가는 영성, 참으로 매력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영력이야말로 진정한 영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영력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담대히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베풀어주신 그 크신 구원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 있으셨을까요?(빌 2:8) 우리 모두의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등 모든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무거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요일 3:16). 히브리서 12 장 2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신학교 선배 목사님 한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천하신 53 세의 동료 목사님의 미망인 사모님과 두 아드님과 영어 복음성가 “The Afters - Well Done”(‘잘했다’)를 나눴다고 말하시면서 그 사모님과 두 아드님에게 너무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 아드님이 조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동문 목사님들 카카오톡 방에서 읽었을 때 얼마 전 고 헨드릭슨 목사님의 장례 축제 예배를 참석했을 때 고인의 아드님 중 한 분이 조사를 자신의 형수님을 통해

하셨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설 때에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실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후 영어 복음 성가 “The Afters – Well Done”이란 찬양을 평생 처음 들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몽클해지면서 그 가사가 하나님께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어 복음성가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내 고통이 사라지면 어떨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면 어떨까? (주님) 당신이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가 당신을 마주 보는 그 순간은 어떨까요?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평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했다 잘 했어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속한 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잘 했다 잘 했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경주를 마쳤고 이제 집에 있다. 너가 속한 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눈물이 씻겨지면 어떨까? 그리고 모든 깨진 것은 마침내 완전하게 되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앞에 서서 당신의 영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날을 위해 평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말씀하는 것을 듣기 위해 제 삶을 살 것입니다:

‘잘 했다 잘 했어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속한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잘 했다 잘 했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경주를 마쳤고 이제 집에 있다. 너가 속한 곳에 온것을 환영한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요. ‘노래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당신은 주님입니다(3x).

저는 그날을 위해 제 평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살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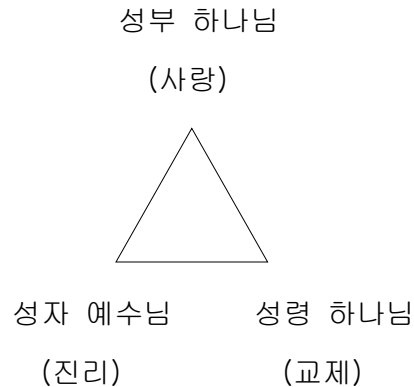
‘잘 했다 잘 했어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속한 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잘 했다 잘 했어 내 사랑하는 자녀. 너는
경주를 마쳤고 이젠 집에 있다. 너가 속한 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잘 했어.’

우리 모두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잘 했다 잘 했어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1, 2 주 전에 어느 한 기독교 신문 웹 사이트에서 어느 목사님이 쓰신
“요한일서”에 관한 책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좀 흥미를 갖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매 주일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며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 소개 글을 내용 중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점은 그 책의 저자가 요한일서를 3 가지 주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3 가지 주제란 “사랑”과 “진리”와 “교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4 가지 주제를 대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4 가지란 “빛”과 “어두움”(요일 1:5), “진리”와 “거짓”(6 절),
“사랑”과 “미움”(2:9) 그리고 “의로움”과 “악” 혹은 “불의”(3:12)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3 가지 주제와 저의 4 가지 주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목사님의 3 가지 주제를 다시금 생각할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 장 8, 16 절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2) 성자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14 장 6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 요한일서 1 장 3 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는 이 3 가지 진리를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았습니다:



저는 이 3 가지 주제인 “사랑”과 “진리”와 “교제”로 요한일서를 전체(1 장 1 절에서 5 장 21 절)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요한일서” 책(편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은 “요한일서” 뿐만 아니라 특히 “로마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함). 그 한 예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요일 4:19)의 관점으로 요한일서 책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 (2) 진리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5:1, 5)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3:23-24)의 관점으로 요한일서 책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 (3)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케 하시며(5:1) 또한 세상과 싸워 승리케 하시는지(5 절)의 관점으로 요한일서 책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설교해 오면서 “요한일서”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4 가지 주제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위에 “요한일서”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의 3 주제와 제가 제안한 4 주제를 비교하면 “사랑”과 “진리”라는 2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3 번째 주제를

“교제”라고 말했고, 저는 “빛”과 “의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사랑”, “진리”, “교제”가 요한일서 책의 3 가지 주제라고 말한 반면에, 저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4 가지 주제를 대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은 “사랑”이란 주제를 말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반대인 ‘미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였고, “진리”란 주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거짓’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였고, 또한 “빛”과 ‘어두움’ 그리고 “의로움”과 ‘악’ 혹은 ‘불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4 가지 주제의 대조를 특히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5 장 4-5 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5 장 4-5 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기느니라”, “이기는” 그리고 “이기는 자”란 말씀을 3 번이나 하고 있고 또한 “세상”이란 단어를 3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란 단어와 “믿는 자”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지를 두 마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4 절),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5 절). 이 사실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자” 즉 사랑의 하나님(4:8, 16)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19 절)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사(3:1)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4:9, 10),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2:2)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1 절)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므로(3:16, 현대인의 성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5:1, 4)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고(1, 5 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므로(3:1, 2) 지금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2:15).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16 절).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17 절).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들, 중생한 우리들, 새 피조물(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제가 제안한 요한일서 전체의 4 가지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이란

(1) 어두운 세상이요 (1:5, 6; 2:8, 9, 11), (2) 거짓된 세상이요(1:6, 8, 10; 2:4, 21, 22; 4:1, 6, 20), (3) 미움의 세상이요(2:9, 11; 3:12-15; 4:20) 또한 (4) 악한 세상이요 불의한 세상입니다(1:9; 2:2, 13, 14, 16; 3:12; 5:17, 18, 19, 21).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5:4).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1, 5 절)인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1, 4 절), 즉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3:1, 2)은 “세상을 이기느니라”는 것입니다(5:4, 5).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militant church)요 또한 승리하는 교회(triumph church)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사단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전투해야 합니다. 전투하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되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받아 순종하길 기원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제(사귄)를 신실하게 또한 친밀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더 깊게,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게 알아가야 합니다.

(2) 우리는 거듭난(중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진리를 행하되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의를 행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한 이 세상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상의 자랑으로서 다 지나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이요 거짓된 세상이요 미움과 악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4-5 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militant church)요 또한 승리하는 교회(triumph church)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사단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전투해야 합니다. 전투하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임하되 우리는 승리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1 장 1-9 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한 승리의 비결 4 가지입니다:

(1)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1 장 3-4, 6b, 13 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12 절) 모세가 명령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13 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입니다: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념해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2)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1 장 5, 9b, 17 절과 3 장 7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평생에 그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마 1:23). 그리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롬 8:31).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3) 승리의 비결은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1 장 6a, 7a, 9a, 18 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으로 놀라겠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 이사야 41 장 10 절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 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야 합니다.

(4)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 다.

성경 여호수아 1 장 7-8 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명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 3:23).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요 6:29).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시 1:2). 그리고 우리는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롬 10:17).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빌 1:25).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롬 8:26)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4-5 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우리가 이미 1 절에서 묵상한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다시 태어난 자란 뜻으로서 그 의미는 새롭게 태어난 자(new birth)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는 계속해서/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ongoing faith)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는 새 피조물/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증거(evidence)가 있다는 것입니다(맥아더). 그 증거는 2 가지입니다: (1) “날으신 이”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2)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자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1 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1 절),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증거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마 22:37, 39)과 사도요한의 요한일서 5 장

1 절 말씀처럼 (1) 하나님을 사랑하며 (2) 형제, 자매(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요일 5:4)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중생한) 자들이요 새 피조물인 우리가 이기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상”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요한일서 2 장 15-17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거듭난(중생한) 자들,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 장 6 절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뱀”이 아담의 아내인 “여자”(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성경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는 요한일서 2 장 16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이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하다는 말씀은 “이생의 자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 장 15 절로 말한다면, 첫째 아담(하와를 책임진 가정의 대표요 인류의 대표로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마지막 아담”(고전 15:45)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 장 1 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public ministry)를 시작하시기 전에 40 일 동안 금식하신 후 주리셨을 때(2 절) “시험하는 자”(3 절) “마귀”(1 절)가 예수님을 3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1)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습시다(3 절).

이것을 창세기 3 장 6 절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먹음직도 하고”이고 요한일서 2 장 16 절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경 신명기 8 장 3 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 4:4).

(2) 두 번째 시험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5-6절).

여기서 마귀는 시편 91 편 11-12 절 말씀을 인용하였지만 좀 다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을 창세기 3 장 6 절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하다이고, 요한일서 2 장 16 절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유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경 신명기 6 장 16 절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 4:7).

(3)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것을 창세기 3 장 6 절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보암직도 하고”이고 요한일서 2 장 16 절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경 신명기 6 장 13 절을 인용하셔서 마귀에 세 번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결국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세상은 요한일서 2 장 16 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미 말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참고: 창 3:6; 마 4:1-11).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4 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중생한) 새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2:15)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중생한) 우리 새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1 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1) 하나님을 사랑하며 (2) 형제, 자매(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참고: 마 22:37, 39).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이종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종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요일 2:17). 사도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 절)고 말씀했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15 절)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5:1).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 수가 있습니다(3:14).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14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종계명을 불순종하게 미혹/유혹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웃들)을

미워하게 만들므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어 어둠에 있는 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2:9),
 우리 속에 거리낌이 있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10 절). 한 마디로, 마귀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3:15, 현대인의 성경).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로부터 거듭난(중생한) 새 사람들은 이긴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5:4).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 절).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4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
 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쓴 짧은 묵상 글 중 몇 개만 나눕니다: (1) 비록 나는
 주님께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죽은 후에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교회 식구들과 주위에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히브리서 11:4).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자입니다(히 11:5-6, 창 5:24). (3)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이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입니다(히브리서
 11:26). (4)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요일 4:20) 보는 것 같이 하여(히 11:27) 보는
 바 우리 식구와 교회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요일 4:20; 마
 22:39). (5) “믿음으로, 비록 그 믿음이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두려운 상황을
 보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히 11:29; 출
 14:10-12),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야 합니다(히 11:34).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 위해선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사로 잡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현대인의 성경)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고후 2:14).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 장 13 절과 14 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마귀의 유혹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며 굳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 장 4 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새 찬송가 357 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2 절과 후렴 가사입니다: (2 절) “온 인류 마귀 꾀술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 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최악 된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계속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만들고자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요일 5:4).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에[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4:4)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견고히 서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1:4).

“하나님의 증거”

[요한일서 5장 6-12절]

여러분, 우리 모두 함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2005년 4월 8일에 “함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란 제목 아래 글을 썼습니다. 이 문구는 제가 그날 저희 교회 나오시던 어르신 한분을 찾아뵙고 난 후에 “함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란 제목 아래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때 그 어르신을 찾아뵙고 전도하려고 그분이 누워계신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목사님이 계신데서 말하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숯덩이’와 같이 시꺼머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제 자신의 '숯덩이'와 같은 마음을 고백하면서 낮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나의 또한 우리의 창피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써서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은 너무나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바울, 즉 사울의 모습처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 보기에 완벽(?)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실 되지 못한 인격과 삶, 위선이 가득 찬 마음과 삶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 앞에서 들춰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복음 전도,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술은 사랑을 외치질 모르지만 사랑을 상대방이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울리는 껍과 리 밖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받은 전도 훈련 등등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증인의 삶으로 하려고 하기 전에 증거로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서 열심히 증거를 하려고 하니 결국 교회로 인도는 할지 모르지만 전도자의 삶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떠나 다시는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영혼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전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보다 사람의 행함이 들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도 왕'이란 말도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채워지고 있는 사람 숫자들, 과연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혼들이 몇 퍼센트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함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쓴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증인의 삶으로 하려고 하기 전에 증거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서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9절하), “...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10절하).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12 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증”(testimony)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저는 “간증”하면 성경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첫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Before Christ)의 이야기입니다(행22:2-5a).

그 이야기란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어서(행22:3)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4절). 이 일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바울의 “증인”이었습니다(5절).

(2) 둘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On Christ)의 이야기입니다(5b-16절).

그 이야기란 사울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서 다메섹에 사는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5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그에게 비쳤고, 그 때 그가 땅에 엎드려져 사울이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주님 누구시나이까”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답변하신 이야기입니다(7-8절). 그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하셨고(10절),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에 들어가 아나니아를 만나 눈을 뜨게 된 후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14-15절). 그리고 사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16절).

(3) 마지막 셋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After Christ)의 이야기입니다 (17-21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 회심(Conversion)하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Commission)을 받아(21절) 그가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15절).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요일5:9, 10).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사도행전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도 간증을 하십시오. 우리가 간

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Before Christ)의 나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On Christ)의 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After Christ)의 나의 이야기를 써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쓴 그 간증문을 우리 가족과 나누십시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9절하), “...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 하였음이라”(10절하).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요한복음과 요한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증거”(witness)란 단어를 거의 70-80번 사용할 정도로 그가 자주 사용한 단어인데 그 “증거”를 한 7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Word Studies in the N.T. 주석):

(1)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The witness of the Father).

성경 요한복음 5장 3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나를 증거하셨다”].

(2)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한 증거입니다(The witness of Christ himself).

성경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3) 일들의 증거입니다(The witness of works).

성경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4) 성경의 증거입니다(The witness of Scripture).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5) 선구자의 증거입니다(The witness of the forerunner).

성경 요한복음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6) 제자들의 증거입니다(The witness of the disciples).

성경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이시니라.” 성경 요한일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7) 성령님의 증거입니다(The witness of the Spirit).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7 종류의 “증거”중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에 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는 첫 번째 종류의 증거인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증거”(the testimony of Go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은 “그 아들에 대하여”(9, 10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독생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5장 1절과 5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하였고, 5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2가지 진리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남은 하나의 진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12절 적어도 2가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8절을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세 증인인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인데(9-10절) 그 증거란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리이신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씀에 “물”과 “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도 요한은 “물”이란 단어를 요한일서에서는 여기 요한일서 5장 6, 8절에서만 사용하고 있지만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26, 31, 3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22절과 4절 12절을 보면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정화” 또는 “죄를 씻음”(cleansing)을 상징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을 의미합니다(비교: 겔 36:25-27). 또한 “물”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성령 부어 주심)(the gift of the Spirit)을 상징하기도 합니다(요 4:13-14; 7:37-39). 결국 “물”이란 “정화” 또는 “죄를 씻음”을 상징하되 특히 성령님으로 인한 “죄를 씻음”을 의미합니다(The IVP 신약 주석). 그러면 “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이미 목상한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51-58절

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희생적인 죽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없이는 영생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없이는 죄 씻음이나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군인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온 예수님의 “피와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씻음(“피”)을 의미합니다(The IVP 신약 주석).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증인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의 의미도 배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구원하시다”, 즉 우리를 우리의 죄에게 구원할 자이심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란 뜻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그 선지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로마서 6장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피”)과 합하여 세례(“물”)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롬 6:4).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므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6절). 한 마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요일5:6)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롬6:11).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2)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비교하면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다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받은 “사람들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받은 사람들의 증언 중에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생명이 세상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그들은 사도 요한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그에게 임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아 그가 직접 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일서 편지를 통해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첫째로는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시고(6-8절), 둘째로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9절).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1, 4절). 즉, 그들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중생케 하신 자들)로서(성령님의 중생케 하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사(성령님의 회심케 하신 사랑)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증거”(9절),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증거(10절)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11절). 한 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는데 (11절) 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1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절).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되었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 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을 받을진대 더욱 크신 하나님의 증거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고 진리이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와 회심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5:10). 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12절). 그 이유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2)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10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한 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a) 먼저,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라고 말씀한 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대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b)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이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5절)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현대인의 성경)] 어둠에 행하면[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래도 한다면(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현대인의 성경)](6절).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9절)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8절)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10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불신자들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그 말씀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요(1, 4절), 거듭난 자들(중생한 자들)이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엡2:1)이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요일5:12).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1절) 하나님의 아들이심(5절)을 증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 요한의 증언을 받을 진데 더욱 큰 또는 “훨씬 더 강력한 증거”를 받지 않겠습니까(9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으로서(9절) 그 증거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증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로서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6-8절,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란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이 사실을 진리이신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씻음(“피”)으로 구원(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10절) “아들이 있는 자”[“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현대인의 성경)]는 생명[“영생”(13절)]이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로서(12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요(10절) 그에게는 “생명”(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12절).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21절]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롬5:12)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23). 여기서 “사망”이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영적인 죽음’과 (2)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될 ‘육체적인 죽음’과 (3)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하게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 그러나 “마지막 아담”(고전15:45)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빌2:8)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 로마서 6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3가지를 의미합니다: (1)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엄마 뱃속의 있는 아기가 탯줄로 엄마와 연결돼 있으므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요일1:2; 5:20)이시요 ‘영원한 탯줄’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2)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요일1:3). (3) 영생이란 주님의 재림 때 몸은 변화하던지(그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고전15:52-53) 또는 부활하여(그 때에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영혼과 연합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살후4:14-16; 계시록 21:1).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영생을 그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원어 헬라어로 "영생"은 "조에(life) 아이오니오스(eternal)"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에"(생명)라는 말과 "아이오니오스" (영원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인터넷): (1) 이것은 첫째로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하고, (2) 둘째로 질적으로 "인간의 삶과는 다른 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말에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이란 의미와, 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적인 삶이란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의 의미는 공관복음(마태복음/ 마가복음/누가복음)처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도 의미하지만 그보다 "현재"에 누리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1)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요17:3)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내세의 축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의 성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요 3:36; 마 22:37, 39). 그리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로서(빌3:20) 하늘나라에서의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구원을 이루는 삶이요(2:12),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3)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평화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영생의 축복인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를 보면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가 적어도 6번 나옵니다:

- (1) (1:2, 현대인의 성경) “이 생명이 세상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 (2) (2: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 (3) (3:1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 (4) (5:11-12, 현대인의 성경)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5:11-12, 현대인의 성경),
- (5) (5:13, 현대인의 성경)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 (6) (5:20,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여섯 성경 구절 말씀을 ‘샌드위치 법’[헬라어 “교차대구법”(chiasm)]으로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았습니다:

- (A) (1장 2절) “...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
- (1)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 영원한 생명이니라”
- (a)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
- (a’) (5장 11-12절)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
- (1’) (5장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 (A’) (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샌드위치 법’의 여섯 성경구절을 유사한 성경구절끼리 묶어보았습니다: (A) 와 (A’)와 묶었고, (1)과 (1’)를 묶었고, (a)와 (a’)를 묶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영생” 혹은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는 이 요한일서의 여섯 성경구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는 3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 핵심 메시지 이것입니다: (1)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A)(1:2) & (A’) (5:20)]. (2)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진실 되고 신실하게 지키시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1) (2:25) & (1’) (5:13)]. (3)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형제를 사랑합니다[(a) (3:14) & (a’) (5:11-12)]. 기도하며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성령님의 성화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답게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므로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천국 생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을 줄 확신하십니까?(새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후렴)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영적인 복,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받은 영원한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5가지가 있습니다:

- (1)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이었습니다(롬5:10, 12). 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현대인의 성경)]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엡2:12)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16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15절, 롬5:10).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요일1:2; 5:20)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었고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누리고 있는 영원한 영적 축복입니다.

(2)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영적인 축복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및 교제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엡2:16)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요일1:1, 현대인의 성경)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로 “영생”(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고전13:12,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누리고 있으며 장차 누릴 영원한 영적 축복입니다.

(3)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영적인 축복은 성령님의 성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창2:17; 3:6; 롬5:12)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창1:27)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고전15:45)이시요 “하나님의 형상”(고후4:4)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 그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케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케(성화)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고후3:18).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낮은 몸[“천한 몸”(현대인의 성경)]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빌3:21).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누리고 있으며 장차 누릴 영원한 영적 축복입니다.

(4)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영적인 축복은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하늘나라에서의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므로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5:5).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갈:5:22) 여기서 “열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수임]인 “사랑”(그 외에 8가지는 “사랑”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함)을 맺으시사(22-23절) 우리로 하여금 천국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계명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22:37, 39; 요3:36) - 말씀에 순종케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중계명은 천국의 계명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고전15:48, 현대인의 성경)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빌3:20) 천국 시민권자들인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현대인의 성경)](빌2:13). 이것이 바로 현재에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12절: “...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의 성화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와 사랑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의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하므로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게 되어 하늘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계21:1-2)에 들어가서 완전한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여 천국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영생복락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네 번째로 누리고 있으며 장차 누릴 영원한 영적 축복입니다.

(5)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시요(사9:6) 또한 “평강의 하나님”(롬15:33)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5: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므로(골1:20)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롬5:1). 또한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되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으므로(엡2:14-16, 현대인의 성경) 우리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평화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분적으로 누리기에 우리는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처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1절과 후렴)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있게 하실 때에(요14:3)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완전히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누리고 있으며 장차 누릴 영원한 영적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21절서 말씀하고 있는 5가지 확신(certainty)(존 맥아더)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수신자들에게 쓰는지 그 목적이 한 6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그 수신자 형제, 자매들에게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냈다는 말입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의 기쁨”[“넘치는 기쁨”(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3절).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 형제, 자매들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원했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일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2)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씌니다. …”].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두 번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1:5)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진정한 수평적인 사랑의 교제는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 수직적인 사랑의 교제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직적인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6절, 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수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도 진정한 수평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2:1, 현대인의 성경).

(3) 요한일서 2장 7-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세 번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참된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참된 예수님이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3:23, 현대인의 성경).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들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2:9)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8절). 그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3:1,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고(1:6,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서(3:7)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의를 행하는(2:29; 3:10) 빛 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온전하게 되어(2:5) 그들 속에 거리낌이 없는(10절) 진리에 속한 자들이요(3:19)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답게 사는 것이기에(14절, 현대인의 성경)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4) 요한일서 2장 12-1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도 아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도 아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네 번째 목적은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고,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으며 또한 그들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비록 그들이 성령님의 통해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했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1:6,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9절).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2:1-2,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그 수신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들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1:1-3) 알고 있었기에 이 요한일서 편지를 그들에게 썼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한 친밀한 교제를 가지길 원해서 그들에게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 지나갈(2:17)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15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했기에(17절) 이 요한일서 편지를 그들에게 썼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은 마지막 때”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18절) “거짓말하는 자”(22절)와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26절)과의 영적 싸움에서 그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싸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14절, 현대인의 성경) 이 요한일서 편지를 그들에게 쓴 것입니다.

(5) 요한일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다섯 번째 목적은 그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21절, 현대인의 성경).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인줄을 알고 있었고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며(18절)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그리스도의 원수”(현대인의 성경)]임을 알고 있었습니다(22절). 그리고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말로 마지막 때에 나타난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9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 형제, 자매들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20절, 현대인의 성경)인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사실과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18절)을 알고 있었기에 이 요한일서 편지를 그 수신자 형제, 자매들에게 써서 그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들 안에 거하게 하”고자[“잊지 않도록 하”고자(24절, 현대인의 성경)]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그들에게 전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닐까요?(1:1-2) 한 마디로,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며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기에(2:22)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그 수신자들에게 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5:1,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5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하므로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2:21)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하고자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24절, 현대인의 성경).

(6)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여섯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 형제, 자매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1:2, 현대인의 성경)를 믿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5:1)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2:21, 현대인의 성경) 이 요한일서 편지를 그들에게서 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그들, 즉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1:2; 5:20)를 믿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5:11-13,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왜 자기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수신자들에게 쓰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저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중적인 목적(twofold purpose)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1)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과 (2)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그 말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unbelievers)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그가 요한일서를 썼을 때에 그 목적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들 (believers)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assurance of salvation)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MacArthur).

우리가 2021년 2월 17일 수요일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 아래 로마서 8장 28-29절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18절)으로서 ‘영생’(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함.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변화하여 천국에 들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28절)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28절)란 “곧 그(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28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28절)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구원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효력 있는/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성령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회개),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회심)”입니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 이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28절)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일평생 모든 것(우리의 죄도 포함)을 합해서 최고의 선인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5장 11-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9절),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증거(10절)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11절). 한 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임(12절). 그 이유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므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벡후1:10). 그리고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고전15:58, 현대인의 성경).

둘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2020년 11월 8일에 시편 55편 16-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라는 제목 아래 쓴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안서는 것일까? 어쩌면 그 이유는 지금 나는 상황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내가 보기에 좋아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생각 속에서 기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상황이 내가 보기에 나빠지고 있으면, 나는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어쩌면 그 이유는 지금 나는 내 기대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 기대감은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그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독이나 질병에서 고침을 받길 원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의 기대는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내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선 상황이나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구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8, 16).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같이 영적으로 죽고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롬8:27)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1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나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입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첫째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뜻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또 다른 예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나요? 또 다른 예는,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성경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에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2) 둘째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구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셋째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배워야) 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눅22:42, 새번역).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바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온 유럽과 전 독일을 휩쓴지 100여년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루터교회는 쇠퇴일로로 걷게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의 후손이기도 한 벤자민 슈몰크 목사는 마지막 하나 남은 조그만 교회의 목사로 넓은 지역을 순회하며 교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나 넓은 지역을 두 부부가 순회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먼 곳으로 심방 가는 날이 많게 되었습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가 32살이 되던 해인 1704년 그해 겨울. 아들 둘을 남겨둔 채 슈몰크 부부는 먼 심방을 가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미뤄온 심방이어서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먼 심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살던 집이 불이 나 전소되어 이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자고 있던 두 아들이었습니다. 슈몰크 부부는 울부짖는 짐승처럼 미친 듯이 잣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자고 있던 두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 은채 새까맣게 타죽어 있었습니다. ‘아아! 어찌 이런 일이..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을 수 있단말인가? ...’ 슈몰크 부부는 처절하게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고난 중에 기진한 슈몰크는 그 순간 자기를 위해 죽으신 갯세마네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고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란 시문이 순간 떠올랐습니다.”(인터넷). 그래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작사한 가사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입니다:

- (1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 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에서 기도에 관하여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15절 외에 3장 21-22절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1-22절에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우리가 그(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23절). 즉,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는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18절).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19절).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21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이미 말한 “거리낌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한 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에 와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장로교회 41주년 설립 기념 로마서 8장 암송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로마서 8장 26-27절과 34절 말씀이 그 문제의 해결이라 믿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27, 34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에서 받은 위로와 힘은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26절).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26절).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롬8:26). 그런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26절). 친히 간구하시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27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성경은 “성령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35절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감람 산에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눅22:42, 새번역)라고 기도하셨던 분으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14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6-17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실례(illustration)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현대인의 성경)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죽을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이지만 죽지 않을 죄도 있습니다”]. 이 실례를 보면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16, 17절) 저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근거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좀 달리 말한다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현대인의 성경)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형제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5:16).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입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6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는 기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눅23:34). 성경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51절)이 스테반 집사를 돌로 칠 때에 스테반 집사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현대인의 성경)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후 숨을 거뒀습니다(60절).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죽을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구하라 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기에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란 “거짓말하는 자”(2:22)인 “적그리스도”(18절)를 따르는 “많은 적그리스도”들(18절)과 “미혹하는 자들”(26절)의 “모든 거짓” (21절)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 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22절) 것을 가리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에는 거짓 선생들(the false teachers)의 거짓말에 미혹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KJV 성경 주석). 이들은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적그리스도들의 영향을 받은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므로 불신 속에서 죽음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기에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편지를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5:16, 현대인의 성경).

제가 대학교 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배운 5가지 확신 중에 기도 응답의 확신 구절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배운 후 제 기억으로는 그 후에 제가 임원으로 섬기던 기독교 동아리에서 새벽기도회를 제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말이 새벽기도회였지 오전 7시에 classroom 하나를 빌려서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때 저는 아마 대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고 참석했던 후배들은 1, 2학년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었는데 처음 2년 동안은 한인 학생회에서 하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제 핑계는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고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학년에 한인 학생회 회장이 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본을 보이려고 새벽기도회를 나아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때 주신 은혜로 신학교를 끝까지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신학교를 졸업한 후 저희 교회에 베버리(Beverly) 건물로 이주했었을 때 저는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 있는 방에서 자면서 3층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던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기도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신실성도 없었고 마지못해 새벽기도회라도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약 18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주시사 한국에서 다시 미국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섭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코 저는 승리장로교회를 세울 수 없음을 정진적으로 깊이 깨닫고 인정케 하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만이 세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령님께서서는 로마서 8장 26-27절과 34절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책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간구처럼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눅22:42, 새 번역).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요일5:14, 현대인의 성경).

셋째 확신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자 훈련의 기초 가운데 배우는 5가지 확신(5 Assurances) 중에는 “승리의 확신” (Assurance of Victory)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확신 성경 구절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God’s test)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사탄의 유혹(Satan’s temptation)을 가리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사탄의 유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짧게 목상한 글을 여러 개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쓴 “사탄의 유혹 (1)”은 성경 누가복음 4장 1-13절에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3가지로 유혹을 당하셨는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끝내(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또 다시 3번 ‘스스로 구원 하라’고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a) (눅23: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b) (36-37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c)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구속자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 (2)”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고난이 없는 십자가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요,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탄의 유혹 (3)”은, 사도행전 21장에 근거하여 3가지로 짧게 목상한 글로서 사탄의 유혹 3가지는 (1) “소동”(30절)과 (2) “소문”(31절)과 (3) “폭행”입니다(35절).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 속에서 충동질을 하게 만들어 소동을 일으키므로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소동”). 그 뿐만 아니라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악성 루머를 퍼트립니다(“소문”).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언행으로 폭행을 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폭행”). 이 “사탄의 유혹”에 관한 글 3개 외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사탄의 전략”이란 제목 아래 9개의 목상을 글을 써보았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거짓을 많이 퍼뜨려 진리를 부인하고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된 전략이다”(맥아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은 비복음적이며 비진리인 거짓에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란 시대의 흐름 아래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동하고 있으며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전략도 좀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 성경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하는 사실 3가지가 있습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은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13절상)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현대인의 성경)]. (2)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13절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현대인의 성경)]. (3)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임[(13절하)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5장 1절과 5절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로부터 거듭난 자 또는 중생한 자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로부터 거듭나자/중생한 자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6절에서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현대인의 성경은 요한일서 5장 5-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을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거듭나(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하나님의 자녀)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고 말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했었음: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났음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성경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께서로부터 거듭난(중생한) 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9).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씨”란 무엇일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25절을 보십시오(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씨”(요일3:9)란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벧전1:23)로서 그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23절), 즉 하나님의 “복음”입니다(25절).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현대인의 성경)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란 “영원히 살아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9절).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요한일서 3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미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이 말씀이 내포된 뜻은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미래의 소망입니다(3절). 마지막 나팔이 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되(고전15:51) 주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사 자기의 “영광의 몸”(“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빌3:21). 그 영광의 몸은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 (2)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신자(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기에 (롬6:4)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으므로(5절)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2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6절).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3) 우리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으므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지만(롬6:4-5)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 전까지(고전15:51, 빌3:21, 요일3:2) 현재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래의 소망과 우리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울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미”(Already) (과거)와 “아직도”(Not yet)(미래) 사이인 교회 시대(church age)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오해하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이미 받았기에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잊지 않는다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은 행함(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엡2:8-9, 롬8:22-24). 구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형입니다: (1) 구원의 과거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요일5:12-13). (2) 구원의 미래란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행16:31, 롬10:9). (3) 구원의 현재란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빌2:12). 그러면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의 완성) 사이에 현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원”이란 영생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십시오’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 답게 사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천국백성)들 답게 사는 것은 바로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마22:37-39).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빌2:13).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힘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시사(갈5:22-23)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으므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지만(롬6:4-5)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 전까지(고전15:51, 빌3:21, 요일3:2) 현재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 이미 우리가 묵상한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의를 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아 우리 또한 의로운 자들이란 말입니다(롬 4:25). 그러므로 의로운 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언제나 의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장차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 전까지 이 교회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일2:1)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6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7-11절). 예수님의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먼저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 첫 번째 계명대로 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장 15-17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는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3:3)은 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의 행하는 것이란 첫째로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2:15-17). 그 다음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 두 번째 계명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장 3-11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의 순종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5절). 그리고 그는 빛 가운데 거하여[“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 자기 속에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께서로부터 거듭난(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자 죄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미래의 소망인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죄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는데(맥아더) 사도 요한은 "악한 자"인 사탄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인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 못"한다(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이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마1:18, 20) 이 세상에 나타나신(요일1:2) "하나님의 아들"(현대인의 성경)이신(5: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1절)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18절). 성경 시편 121편 3-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넷째 확신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중생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확신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면 (2) 사탄의 자녀들(맥아더). 성경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그 구별하는 방법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현대인의 성경)라는 것입니다(10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란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킵니다(10절). 다시 말하면, 사탄(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7절)로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절). 성경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고 2장 6절에 가서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예수님)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는 자”(3:7)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2:1)와 같이 자기도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6절).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하면 그 결론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데로 자기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원어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로 부터’(We are from God)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낳습니다’(He is born of God)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나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말씀과 5장 1, 4절에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란 말씀 둘 다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로 부터’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19절)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자”(1, 4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인 우리는 사도 요한의 증거(9절)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1절)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5절) “하나님의 증거”인 하나님의 아들(9, 10절)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 안에는(10절) “영원한 생명”(11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12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아는 것(And we know)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또”라고 말한 이유는 18절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We know)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9절을 시작하면서 “또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고 20절에 “또 아는 것”이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일서 5장만 봐도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we know)”고 말했고, 15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we know)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we know)”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안다’(we know)라는 말을 요한일서 5장에서만 6번이나 말했는데 그 의미는 ‘확실히 안다’(know for sure)와 그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 것(enjoy knowing the truth continually)을 의미합니다(KJV 성경 주석).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안다’(we know)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1) (요일2: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we know),”
- (2)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we know),”
- (3)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we know),”
- (4)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We know)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 (5)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We know)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 (6)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We know)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 (7)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We will know)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 (8) (4: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we know),”
- (9)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we know),”

(10)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We have come to know)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는 요한일서1-4장에 ‘우리가 안다’(we know)라고 적힌 10개의 말씀과 요한일서 5장에 나온 6개의 말씀, 도합 16개의 말씀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어떻게 자기와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한 14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

- (1)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2:3).
- (2) 예수님(주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5절).
- (3)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자들로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18절).
- (4)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압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3:2).
- (5)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영생)으로 들어간 줄을 압니다(14절).
- (6)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으로 사랑을 압니다(16절).
- (7)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서(18절) 진리에 속한 줄을 압니다(19절).

- (8) 진리의 영(성령님)과 미혹의 영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4:6).
- (9)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13절).
- (10)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16절).
- (11)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5:2).
- (1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15절).
- (13)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중생한 자)는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18절).
- (14)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20절).
- (15) 우리는 그 지각으로 “참된 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신 참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20절).

그런 후 저는 이 14가지 결론 중 다음에 목상할 20절은 빼고 나머지 13개 중심으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지를 한 3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 (1)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4:16).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으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3:16).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4:13).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5:15).

(2)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2:3, 5).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이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3:14; 5:2).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3:19). 결코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5:18).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사망에서 생명(영생)으로 들어간 줄을 알 뿐 아니라(14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압니다(19절).

(3)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압니다(3:2).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 모습 그 대로 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2절). 그러기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2:18).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미혹의 영을 알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결코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4:6). 즉,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영원한 복음”(계14:6)]을 듣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2:22),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22절) 다른 복음(갈1:6-9; 고후11:4), 거짓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9절 후반절에서 이것 또한 확실히 하는 것은 “...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현대인의 성경)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최악 된 악한 세상은 “악한 자”인 마귀(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 비록 지금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This Age)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The Coming Age)인 하늘에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과 구별된(참고: 3:10, 현대인의 성경) 하늘의 속한 자들(고전15:40, 48, 49)[천국 시민권 자들답게(빌3:20)]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 또는 천국 시민권 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2014년 9월 29일에 “천국 시민권자의 생활”이란 제목 아래 이런 글을 쓴 것을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빌3:20).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1:27).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천국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천국의 법은 예수님의 이중 계명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10:27).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이 계명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화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화 이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주님의 증인 공동체로 사용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정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세상(천국)에서 총만히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총만할 것입니다(요 15:9-12).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비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총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This Age)에서 다가오는 세상(The Coming Age)인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새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1, 4절).

우리는 지금 “악한 자”인 사탄(마귀)이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인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마10:16).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악한 자”인 사탄과 싸워(영적 전쟁을 하여)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리 생각하는 근거는 요한일서 2장 13, 14절과 4장 4절입니다: (2:13) “...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2:14)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4: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시다는 것(4:4)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2:14)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5:4). 이 진리를 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2가지입니다:

(1)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 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한 후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2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2:2).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받쳐져 죽으시므로 죄를 형벌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대언자이십니다(1절). 하나님의 법정에 섰는데 사탄이 재판장이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기소(prosecutes)를 할 때에 피고 측 변호사(defense attorney)가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도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5절). (2)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4:9-10).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입니다(10절). 하나님께 속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시다는 진리(4:4, 현대인이 성경)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며 굳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사탄(마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다가오는 저 세상인 하늘에 시민권자답게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의 삶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16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현대인의 성경)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यो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시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 돌아오게 되어 지금까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바 되어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며, 의지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님, 주님의 교회인 승리장로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신앙 고백한대로 살아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이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사 요동함과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서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다섯 번째 확신(certainty)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확신입니다[(20절 하반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이 다섯 번째 확신의 진리가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전체를 요약(summation)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맥아더). 그 정도로 이 다섯 번째 마지막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현대인의 성경)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HE IS HERE”)는 것입니다(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주석). 과연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20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는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13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understanding) [(현대인의 성경)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다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여기 5장 20절에서만 사용을 했는데 그 헬라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through”(통하여) + “mind”(마음)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각(깨달음)은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사도 베드로에게 “알게”하셨다(revealed)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0절의 “지각”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지혜를 주시므로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2)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요한일서 편지를 써내려갔을 때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았습니다. 흥미로운 대조는 지금 이 세상(This Age)은

“악한 자”인 사탄(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5:19, 현대인의 성경)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2:18) 거짓말로 미혹하여(22, 26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22절) 다가오는 세상(The Coming Age)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깨달음)을 주시므로 “참된 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5:20)[(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 특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우상”과 20절에서 “참된 자”이신 하나님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므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기에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20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19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마귀)의 미혹적인 모든 거짓말들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짓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맥아더).

(3)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는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이유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신성모독 죄’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요19:6)고 외친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21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수군거렸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여 수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18-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여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라고 말하고(마11:27)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말했기에(27:43) 예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거짓말 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2:22) 그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지 않는(4:15) 무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요한일서 5장에 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1절)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5절)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인 사도 요한의 증거를 받는다면 더욱 큰 증거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5:9)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1, 12절).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 것[“또 아는 것”(20절)]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는 진리입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1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5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그 성도들이 확실히 알고 그 진리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길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수신자 성도들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심을 확실히 알고 그 진리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길 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1장 1절과 2절에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1절)이요 “이 영원한 생명”(2절)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요한일서 편지 쓰기를 마치면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도 보면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의 결론이라는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책(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을 보면 사도 요한은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즐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깨달음)을 주시길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각(깨달음)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종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마22:37, 39)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21년 12월 26일,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기원하면서)

결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16).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주와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9-10, 1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으로서(1:1-3; 5:20)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4:2)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2:2; 3:16).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받쳐져 죽으시므로 죄를 형벌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케 하시사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4:10).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1:1-2; 5:20)께서 죽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죄가 전혀 없으신(3:5, 현대인의 성경)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2:1)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3:5)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일까요?(2:2)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3:1, 현대인의 성경). 이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4:3) 성령님(13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여(5:1, 4)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1절)과 하나님의 아들이심(5절)과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심(1:1-2; 5:20)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되었으며(4:2-3, 15)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3:1, 2)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4:13,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3:24)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4:6)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도록 하시며(1:3), 진리를 행하게 하시되(6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대로(3:23, 24; 5:3) 서로 사랑케 하시고 계십니다(3:11; 4:7; 5:1-2). 사랑케 하시되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케 하시며(3:18) 심지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형제들을 위하여 버리게까지 하

시사(16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19절)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5: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케 하시므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14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사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2:17, 현대인의 성경). 특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많은 적그리스도와(2:18) 거짓말 하는 자(22절)와 미혹하는 자들(26절)과 거짓 선지자들(4:1)의 미혹의 영(6절)과 거짓 복음(2:22-23)을 분별하게 하십니다(4:1). 또한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2:14, 현대인의 성경)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사(5:4) 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과 이 세상에 대한 욕망(2:16-17, 현대인의 성경)과 믿음으로 싸워 승리케 하십니다(5:4).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5:18, 현대인의 성경).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3:2-3,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21절). 바라기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고(4: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2:28).